

2006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칼 바르트의 선택론 평가
(바르트와 칼빈의 선택론 비교 평가)

총신대학교 일반 대학원

신학과 조직 신학 전공

김 찬 영

2006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칼 바르트의 선택론 평가
(바르트와 칼빈의 선택론 비교 평가)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총신대학교 일반 대학원

신학과 조직 신학 전공

김 찬 영

김찬영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2006년 12월 일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목 차

| | |
|----------------------------------|----|
| 제1장 서론 ----- | 1 |
| 1.1. 문제제기 ----- | 1 |
| 1.2. 연구방향과 범위 ----- | 2 |
| 제2장 칼 바르트의 선택론 ----- | 3 |
| 2.1. 바르트 선택론의 출발점----- | 3 |
| 2.1.1. 선택론의 중요성과 교리학적 위치----- | 3 |
| 2.1.2. 선택론의 출발점----- | 8 |
| 2.1.2.1. 선택론의 잘못된 출발점----- | 10 |
| 2.1.2.2. 바르트 선택론의 출발점과 기초----- | 12 |
| 2.2. 바르트의 선택론 정의 ----- | 18 |
| 2.2.1. 바르트의 선택 이해 ----- | 18 |
| 2.2.2. 바르트의 은혜 이해 ----- | 20 |
| 2.2.3.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 22 |
| 2.2.3.1. 예수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신가? ----- | 27 |
| 2.2.3.2. 선택된 인간 예수----- | 34 |
| 2.2.4. 바르트의 이중 예정 ----- | 41 |
| 2.3. 선택의 대상 ----- | 46 |

| | |
|--|----|
| 2.3.1. 중간적 선택으로서의 공동체의 선택 ----- | 46 |
| 2.3.2. 개별자의 선택 ----- | 52 |
| 2.3.2.1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체의 선택 속에서의 개별자의 선택----- | 52 |
| 2.3.2.2 선택과 믿음의 관계 ----- | 56 |
| 2.3.2.3 개별자 선택의 의도와 목적 ----- | 67 |
| 제3장 칼뱅의 선택론 ----- | 70 |
| 3.1. 칼뱅의 선택론의 중요성과 선택론 이해의 범위----- | 70 |
| 3.1.1. 선택론의 유익과 중요성 ----- | 70 |
| 3.1.2. 선택론의 범위와 접근 태도 ----- | 74 |
| 3.2. 하나님의 선택 ----- | 77 |
| 3.2.1. 칼뱅의 선택론의 정의 ----- | 77 |
| 3.2.2. 예정의 주체와 대상 ----- | 79 |
| 3.2.3. 영원한 섭리로서의 예정 ----- | 82 |
| 3.2.3.1 선택의 이유 ----- | 84 |
| 3.2.3.2. 유기 이유 ----- | 87 |
| 3.2.4 선택과 유기 목적 ----- | 90 |
| 제4장 바르트의 선택론의 문제점 ----- | 92 |
| 4.1. 바르트와 칼뱅의 선택론 비교----- | 92 |
| 4.1.1 선택론의 출발점과 기초 ----- | 92 |
| 4.1.2. 선택교리의 교리적 의미 ----- | 95 |

| | |
|---|-----|
| 4.1.3.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 | 98 |
| 4.1.4. 하나님의 기쁘신 뜻(선택의 불가해성)----- | 103 |
| 4.1.5. 이중 예정 ----- | 107 |
| 4.2. 바르트 선택론의 문제점 ----- | 112 |
| 4.2.1. 한 인격 한 하나님 vs. 인간 예수 ----- | 112 |
| 4.2.2. 보편구원론 ----- | 116 |
| 4.2.3. 타락과 죄의 현실성을 간과 ----- | 117 |
| 4.2.4. 인간 결단의 무용성 (objective impossibility) ----- | 119 |
| 제5장 결론----- | 120 |

제1장 서론

1.1. 문제제기

개신교 진영에서 장로교를 다른 교파와 가장 두드러지게 구별 짓는 교리는 선택론일 것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는 칼뱅과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이후로 거의 20세기 초반까지 주목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칼 바르트는 선택론 교리를 복음의 총화라고 천명하며 선택론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사실 상 바르트에 의해서 선택론 교리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 바르트는 선택론 교리를 복음이라고 주장하면서 잊혀져가는 교리의 부흥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바르트의 시도가 선택론의 진정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일까? 선택론에 관한 바르트의 해석이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칼뱅을 넘어서 진정한 성경적 선택론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그는 더 많은 것을 말하거나 더 적게 말한 것은 아닌가? 더 심각하게는 다른 것을 말하거나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선택론 자체를 복음으로 만들고 칼뱅을 극복하고자 한 바르트의 시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 극복하고자 한 시도와 같은 것은 아닌가? 바르트는 선택을, 하

1) 브루너는 바르트의 선택론을 현대 신학에서 선택론에 대한 가장 자세하고 포괄적인 논의이며 동시에 전적으로 새로운 개념(some entirely new ideas)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 Emil Brunner, *The Christian Doctrine of God*, Trans. Olive Wy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49), 346.

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를 통보하고 신화시키도록 작정한 하나님의 자기 결정으로 이해한다.²⁾ 바르트에 의하면 선택은 죄인을 죄와 그 결과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론적 양양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바르트의 이러한 선택론이해가 어떤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의 선택론이 전통적인 개혁신학의 선택론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성경적인지 평가해보고자 한다.

1.2. 연구방향과 범위

이 글은 칼 바르트의 선택론을 그의 교의학³⁾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평가하되 그의 선택론 배후에 깔려 있는 바르트의 신학적 전제를 밝힘으로써 그의 선택론이 정작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덧붙여서 바르트의 선택론을 칼뱅의 선택론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글의 흐름과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에 국한하여 바르트의 선택론의 출발점과 기초를 밝히고 바르트가 선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왜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인지를 밝힌다. 이와 동시에 그의 선택론 배후에 깔려 있거나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신학적 전제들을 살핀다. 제3장에서는 바르트의 선택론의 문제점을 보다 분명하게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참조점으로 칼뱅의 선택론을 그의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본다.⁴⁾ 그리고 제4장에서는 칼 바르트와 칼뱅의 선택론을 몇몇 중요

2) Karl Barth, *Kirchliche Dogmatik* (Vierte Auflage; Zuerich: EVZ-Verlag, 1970), II/2, 101, 288.

3) *Kirchliche Dogmatik* (Vierte Auflage; Zuerich: EVZ-Verlag, 1970) II/2, §32-§35 과 Church Dogmatics II. 2 (T and T Clark, Edinburgh)를 보라

4) 본인이 참조한 기독교 강요는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한 주제에 따라서 비교하고 바르트의 선택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제2장 칼 바르트의 선택론

2.1. 바르트 선택론의 출발점

2.1.1. 선택론의 중요성과 교리학적 위치

전통적 이해에 있어서 선택론은 하나님께서 인격적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섭리의 교리이므로 그것은 결코 주변적인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바르트에게 있어서 선택론은 그의 신학 전체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선택 교리가 복음의 총화라고 주저 없이 말한다.⁵⁾ 그리고 그는 선택교리가 모든 기독교 교리와 관련이 있는 핵심교리라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바르트의 선택론을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할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바르트의 선택 이해는 바로 그의 하나님 이해와 복음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선택론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말하는 복음, 그가 이해한 하나님이 전통적 교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그의 선택이해가 비성경적이라면 그의 복음 이해와 하나님 이해도 비성경적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것은 역으로 그의 복음이해와 하나님 이해에 오류가 있다면 그의 선택이해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그의 선택론은 그의 신학 전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T. McNei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의 2권 21장에서 24장까지이다.

5) *KD*, II/2, 1 : "Die Erwaehlungslehre ist die Summe des Evangeliums."

바르트는 선택 교리가 창조와 화해 그리고 영원한 구속의 전제가 되는 교리라고 말한다.⁶⁾ 어떤 이유에서 그는 선택 교리가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출발이 되고 전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서, 그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되시는 원 결정 그리고 기초 결정 안에서, 그 자신 안에 그리고 **삼위일체 본질 안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 안에서 발생한 것의 비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며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과 함께 그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나오고 그의 계시 안에서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나오는 그에 대한 어떤 인식도 그의 선택에 대한 지식과 다른 것이 결코 아니다. 어떤 기독교 진리도 처음부터 그것의 근거로서 자기 안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토록 선택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지식은 없다. 기독교 교리의 어떤 문장도 그것이 하나의 기독교적 문장이 되려면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이러한 신적인 선택을 반영해야만 한다. : 그 영원한 선택 안에서 그리고 그것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 없이, **그의 백성 없이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교리는 모든 다른 기독교 교리들의 선두(Spitze)에 속한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선택하시는 분으로서 말고 다른 하나님이기를 원하지도 않고 실제로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Lehre von Gott selber) 교리에 속한다.⁷⁾

6) KD, II/2, 82.

7) KD, II/2, 82-83 : " Gott in sich selber, in der Ur- und Grundentscheidung, in der er Gott sein will und also auch, in dem Geheimnis dessen, was in ihm selbst, **in seinem dreieinigen Wesen**, von Ewigkeit her und in alle Ewigkeit hinein geschehen ist, kein Anderer ist als **der in seinem Sohne oder Wort wählende** - sich selbst und in und mit sich selbst das Volk seiner Menschenwählende Gott. Keine nachfolgende Erkenntnis Gottes aus seiner Offenbarung und aus dem in seiner Offenbarung sichtbar werdenden Werk Gottes, die nicht als solche Erkenntnis dieses seines Wählens waere! Keine christliche Wahrheit, die nicht von Hause aus als ihre Grundlage dies in sich schloesse, dass **Gott von Ewigkeit her und in die Ewigkeit hinein der Erwählende ist.** Keine Satz christlicher Lehre, der nicht nach Form und Inhalt auch

여기서 바르트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본질상 선택하시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존재의 본질상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토록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상 필연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명제로 귀결되는가? 바르트는 “삼위일체의 본질 안에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이렇게 다시 풀어서 말한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 없이, 그의 백성 없이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존재하지도 않으신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피조물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이것이 바르트의 선택론 배후에 있는 그의 신관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전통적 의미의 삼위일체가 아니라 단일한 신적 존재로 한 하나님이다.⁸⁾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바르트의 하나님은 영원한 교제와 사랑이 가능한 삼위일체가 아니라⁹⁾ 단일한 인격의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사랑 할 대상을 본질적으로 필요로 한다. 여기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바르트에게 선택이란 단일한 인격의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쏟을 대상을 영원 전에 작정하심이다. 바르트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 없이는 존재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는” 단일한 인격의 한 하나님이시다.¹⁰⁾

dieses goettliche Waehlen reflektieren muesste, wenn er ein christliche Satz sein soll: das ewige Waehlen, in dem und kraft dessen **Gott nicht ohne seinen Menschen, nicht ohne das Volk seiner Menschen Gott sein will und ist !** Weil dem so ist, darum gehoert die Erwaehlunslehre an die Spitze aller anderen christlichen Saetze. Und sie gehoert darum zur Lehre von Gott selber, weil Gott selber nicht anders Gott sein will und also auch nicht anders Gott ist denn als dieser Waehlende." (강조는 본인의 첨가)

8) *KD*, III/1, 204. cf. Chul Won Suh, *The Creation-Mediatorship of Jesus Christ*, (Amsterdam: Rodopi, 1982), 35-37

9) *KD*, IV/1, 69 바르트의 한 인격 한 하나님 개념에 따르면 성부와 성자의 약정은 신화에 불과하며 결국 성부와 성자의 교제와 사랑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10) *KD*, II/2, 83.

바르트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택의 교리는 신론의 핵심이고 모든 기독교 교리에 선행하는 근본교리이며 기초 교리이다.¹¹⁾ 그

11) 앞에서 바르트가 암시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과 같이 바르트는 자기 자신의 입장의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와는 다른 여섯 가지 입장을 고찰하고 있다.

첫째, 예정교리가 신론에 뒤따라 논의되는 입장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러한 입장은 아일랜드 종교조항(Irishen Religionsartikeln)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학자로는 폴라누스, 볼렙, 벤델린, H. 알팅, A. 하이다누스, Fr. 부르만, Fr. 투레티니, P. 판 마스트리히트, 살 반틸 등이 있다. 이 체계에 따르면 예정교리는 신론을 제외한 창조를 포함해서 나머지 전 내용에 앞선다. 이 입장은 예정 교리가 다른 교리에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자신의 체계와 비슷한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첫 번째 입장이 바르트의 체계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상 이것은 선택 교리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택 교리를 일반적인 섭리의 틀 안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나님의 선택을 절대적 의지와 신에 대한 추상적 사변에 기초시키는 잘못에 빠지게 된다.

둘째, 창조와 섭리를 말한 후에 선택을 말하는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 입장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혁파 가운데는 쾰링글리, 루터파 가운데는 L. 훗터루스, J. 게어하르트가 있다. 그런데 바르트는 특히 이 세 신학자가 하나님-그리스도-창조-예정의 순서의 도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바르트는 여기서 “하나님-그리스도-창조-예정”의 도식을 다룬다. 이 도식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역중의 사역 그리고 창조를 선행하는 사역은 성육신이다. 바르트는 이러한 입장이 기독교론을 적절하게 강조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입장도 그리스도를 선택의 형식으로 이해하는 데는 실패했다.

셋째, 선택 교리가 교회론의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입장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러한 입장은 선택론을 신론과 분리시키고 창조와 죄 교리 이후에 선택론을 다룬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런 입장에 해당하는 사람은 쾰링글리와 젊은 칼빈이다. “쾰링글리에 의하면 교회는 가장 내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정된 택자들의 총체와 동일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해석은 젊은 칼빈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다..... 칼빈에 의하면 신앙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는 전체적인(universus) 택자들의 수와 동일하다.” 바르트는 교회론의 맥락에서 선택을 다루는 유익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교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등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이고 이 백성으로의 선택이다. 그렇다면 이 입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바르트에 의하면, 선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일차적으로 교회와의 직접적 관련 속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일차적으로 선택하시는

리고 바르트에 의하면 화해론의 시작과 끝 그리고 핵심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선택 교리이다.¹²⁾ 바르트가 말하는 선택은 피조물을 하나님의 언약 상대자로 만드는 원 결정이며 피조물의 신 존재에 동참시키는 결정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할 피조물을 자신과의 교제의 대상으로 부르시고 피조물에게 자신의 존재를 주어 양양시킨다. 이것이 바로 선택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언약 상대자로 만들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결정인 선택은 복음의 총화이다.¹³⁾ 왜냐하면 선택론에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스런 호의가 결정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기존의 선택론은 복음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따라서 자신의 선택론을

하나님에 관해서 말해야 한다. 즉, 선택하시는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들 보다 앞선다. 넷째, 선택 교리가 기독교론을 바로 뒤따라 언급되는 입장이다. 바르트는 따라 나올 두 가지 입장과 함께 네 번째 입장이 같은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언급한다. 왜냐하면 이들 세 입장은 예정을 전체 화해교리 혹은 구원론의 원리와 열쇠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 *KD*, II/2, 90, 네 번째 입장에 해당하는 사람은 칼빈(1537 교리문답서 초판에서)과 마르티어와 비트시어이다. 다섯째, 선택 교리가 죄론과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며 구원론뿐만 아니라 기독교론에 앞서는 입장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다수의 개혁 교회 신앙고백서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신학자로서는 콕세이우스, 쾨니히, 크벤슈타트, 홀라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섯째, 선택 교리가 화해론 안에서 이해되는 입장이다. 이것은 화해론이 선택의 목적이요 선택론은 화해론의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KD*, II/2, 92. 바르트에 의하면,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으로는 벨랑히톤과 칼빈(1539년 이후의 기독교 강요) 부카누스와 칼로프 이다. 이들 세 입장은 약간의 차이 점에도 불구하고 선택론을 화해론 과의 관련 속에서 다루고 있다.

12) *KD*, II/2, 95-96 : " Diese entscheidende Wort und Geheimnis gerade der Versoehnungslehre ist eben die Erwaehlungslehre. " 바르트는 화해론을 선택론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다룬다.

13) *KD*, II/2, 1 : "Die Erwaehlungslehre ist die Summe des Evangeliums."

개진한다고 주장한다. 바르트는 왜 이러한 생각을 품게 된 것일까? 우리는 바르트 선택론이 무엇인지 그 이해의 예비단계로서 바르트의 선택론의 출발점과 전통적 선택론에 관한 그의 문제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1.2. 선택론의 출발점

바르트는 선택론을 고찰할 때, 그 자료의 원천과 형식적 출발점을 이성이나 경험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선택론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증거에 귀를 기울일 때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전통적 선택론의 문제점은 이성과 경험을 선택론 이해의 기초와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데에 있다고 바르트는 말한다.¹⁴⁾ 바르트에 의하면 선택론은 신론이므로 이성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고찰하는 순간 이미 왜곡되며, 이렇게 되면 선택론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가설적 영상”을 그 대상으로 삼게 된다.¹⁵⁾

그러므로 선택론의 바른 출발점은 하나님의 자기 증거이다.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기 증거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다.¹⁶⁾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 지식을 지배하는 유일한 원천이고 규범인 성경의 소리를 듣고 잘 이해하는 것이 선택 교리의 형식적 출발점이다.¹⁷⁾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

14) KD, II/2, 37-46.

15) KD, II/2, 1 : "ihr Gegenstand in Wahrheit nicht Gott, sondern das hypostasierte Spiegelbild des Menschen ist."

16) Ibid. : "Wir sind ausgegangen von dem, was Gott selber von sich selber..... gesagt hat und noch sagt laut seines Selbstzeugnisses, wie es uns in der heiligen Schrift als dem Dokument menschlich bezeugt und insofern erreichbar und verstaendlich ist."

칼뱅과 바르트는 둘 다 성경을 형식적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칼뱅도 예정교리를 이해하고 이중 예정을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성경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계 속에서만 예정 교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¹⁸⁾ 칼뱅은 하나님께서 예정론을 자신의 권위 있는 말씀가운데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자신도 이 교리를 가르치고 옹호한다고 단언한다.¹⁹⁾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바르트는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칼뱅의 선택교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성경이 선택론 논의에 있어서 유일한 자료이며 원천이라고 둘 다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성경 자체에 대한 이해의 차이 곧 성경관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내용에 대한 양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결국 바르트에게 중요한 것은, 선택론의 형식적 출발점이 아니라 선택론의 내용적 출발점이다. 바르트의 선택론의 내용적 출발점은 무엇인가? 형식적 출발점의 실질적 내용은 무엇인가? 바르트에 의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며²⁰⁾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신인의 연합이다.²¹⁾

17) 칼뱅과 바르트 둘 다 선택론의 형식적 출발점이 성경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점은 금 새 드러난다. 왜냐하면 양자의 성경관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칼뱅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만 바르트에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증언을 수행하는 도구 역할을 할 때에야 비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18) Institutes 3,21,1.

19) Ibid. 3, 21-24.

20) *KD*, II/2, 2. "Die regierende Stimme, durch die wir uns von Gott selbst ueber Gott unterrichten liessen, war aber die Stimme Jesu Christi." 그리고 커닝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Jesus Christ is the logical subject matter of the theological topics and values in the Bible." - Mary Kathleen Cunningham, *What is Theological Exegesis?*, (Valley Forge, P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5), 70.

2.1.2.1. 선택론의 잘못된 출발점

바르트에 의하면 전통적인 선택론들의 오류는 잘못된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 교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스스로가 말한 것을 기초로 해서만 합법적으로 이해되고 표현될 수 있는데 전통적인 선택론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증거 이외에 다른 기초와 자료를 가지고 선택론을 개진했다는 것이다.²²⁾ 바르트가 말하는 잘못된 기초는 크게 네 가지이다. 1) 교회의 전통, 2)목회적 필요성, 3)인간적 경험, 4)철학적 신 관념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교회의 전통은 교리 작업의 대상과 규범이 아니라 단지 기회를 제공하고 도움을 줄 뿐이다. 오히려 그 전통의 진정한 기원이 무엇인지, 교리 이해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적합한지 검사해야 한다.²³⁾ 두 번째로 선택교리의 기초와 목회적 필

21) 이러한 바르트의 핵심 명제는 선택교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바르트에 의하면 기독교 교리 전부가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끝난다. 기독교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며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계시 된다.(dieses Subjekt schlechterdings in dem Namen Jesus Christus erschlossen)"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계시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자체(fuer sich und als solches)로 이해되고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이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타자와의 특정한 관계성 속에서 존재 한다.- *KD*, II/2, 4.

22) *KD*, II/2, 36:" Es kann also auch die Erwaehlungslehre nur in Form einer Auslegung dessen, was Gott selber von sich selber gesagt hat und sagt, legitim verstanden und dargestellt werden."

23) *KD*, II/2, 37: "Es kann auch die beste kirchliche Ueberlieferung in Sachen der Erwaehlungslehre wohl Anlass und Hilfsmittel, aber nicht Gegenstand und Norm der dogmatischen Bemuehung sein. Es ist vielmehr auch die beste kirchliche Ueberlieferung gerade in dieser Sache zu befragenm, woher sie eigentlich kommt und inwiewelt sie sich schon in dieser Hinsicht als Hilfsmittel eignen und nicht eignen

요성 같은 실용적 측면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²⁴⁾ 선택 교리의 기초는 가치와 유용성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질문되어야 하고 그것이 명확해진 다음에야 그것의 가치와 유용성에 대한 언급이 가능하다.²⁵⁾ 세 번째 위험은 선택 교리의 기초를 경험에서 찾는 것이다.²⁶⁾ 바르트가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인과 비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런 경험적 차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으로 나아가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선택론의 기초로서 피해야 할 네 번째 것은 전능한 의지로서의 하나님 개념이다. 바르트에게 “전능한 의지”라는 것은 자신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불

moechte.

바르트는 교회의 전통을 선택 교리의 기초로 삼은 잘못에 대해서 현대의 신 칼빈주의(Der moderne Neo-Calvinismus)를 언급하고 있다. 이것의 대표자로 뵈트너(Loraine Boettner)를 그는 언급하는데, 바르트는 뵈트너의 주장 'The purpose of this book is to give a re-statement of that great system, which is known as the Reformed Faith or Calvinism and to show that this is beyond all doubt the teaching of the Bible and of reason' 은 오히려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의에게 비난받았던 로마 카톨릭의 원리라고 말한다.

24) *KD*, II/2, 38 : "Man wird zum rechten Verstaendnis der Erwaehlungslehre ihre Begrueundung nicht verwechseln duerfen mit dem, worin man allenfalls ihren didaktischen Wert und ihre paedagogisch seelsorgeriliche Brauchbarkeit zu erkennen meint."

25) 바르트에 의하면 칼빈이 주장한 선택 교리의 유익(utilitas)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자체로 영원한 중요성과 기초적 가치를 지닌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공식으로 변형되었다고 말한다. 그 예로서 Beza나 Gomarus는 하나님의 영광에 원리적 가치를 부여 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이 택자들의 절대적 확신으로 막스 베버는 겸손을 선택 교리의 특정한 결과로 묘사하게 되었다. - *KD*, II/2, 38-39.

26) *KD*, II/2, 39-40 : "..... ist die Begrueundung der Erwaehlungslehre auf ein Datum vermeintlicher oder wirklicher Erfahrung."

가항력적으로 조종하며 인간의 구원과 저주를 임의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 한다.²⁷⁾ 물론 바르트는 자신이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롭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고 말한다.²⁸⁾ 다만 이것을 선택의 기초로 삼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선택을 절대적 섭리로 이해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 안에서 신인연합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불가항력적으로 작용하는 전능, 임의의 자유와 절대적 통치권 그 자체로 추상화 시키게 된다는 것이다.²⁹⁾ 결국 이성으로 만들어낸 전능한 의지라는 하나님 개념에서 도출된 선택론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유와 필연성의 원리에 의해 세계 질서가 정해지고 수행된 것”을 의미하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³⁰⁾

2.1.2.2. 바르트 선택론의 출발점과 기초

그렇다면 바르트가 말하는 선택 교리의 정당한 기초는 무엇인가? 바르트에 의하면 무엇을 출발점으로 하고 선택론을 개진해야 하는가?

27) *KD*, II/2, 46, "Eine zweite ernstzunehmende, aber nur um so mehr abzulehnende Begründung der Erwaehlungslehre ist die aus dem Begriff von Gott als dem nach seinem eigenen Gesetz alles und jedes geschöpfliche Geschehen beherrschenden und unwiderstehlich lenkenden und so auch ueber Heil und Verderben der Menschen verfügenden Allmachtswillen."

28) *KD*, II/2, 47.

29) *Ibid*.

30) 여기서 바르트가 비판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의 하나는 아퀴나스(Thomas von Aquino)인데, 바르트에 의하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예정 교리는 신적인 섭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섭리란 하나님의 지혜와 의지를 통해서 모든 사물들을 그것에 부과된 목적에 맞게 이끌어가는 명령과 지도이다. 신의 지식과 의지에 모든 것이 섭리적으로 굴복한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예정은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다(Die Praedestination ist quaedam pars providentiae),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선택하시는 하나님인 한에 있어서 선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다른 길을 떠나 결눈질이나 부수적인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의 실존과 역사에 그리고 이 이름과 이 역사와 이 머리와 몸의 비밀에 주목해야한다.³¹⁾

바르트에 의하면 선택에 대한 어떤 논의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사변에 불과하며 비성경적 변형에 이르고 만다.

이 이름(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앞에 놓여진 길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전제를 위해서 그리고 그 전제들로부터 나온 추상적 결과를 위해서 없어지거나 의미 없게 되어서는 안 된다.³²⁾

바르트에 의하면 선택에 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일치한다.³³⁾ 그래서 바르트에게 선택 교리의 유일한 출처와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다. 바르트가 예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선택론 전체의 기초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제2위인 성자의 성육신이며 따라서 영원한 말씀의 육화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의 지식에 이르는 길, 기초 그리고 원천이라는

31) *KD*, II/2, 58 : "wenn wir wissen wollen, wer Gott ist und was ew um sein Erwaehle, inwiefern er der erwaehlende Gott ist, dann haben wir von allem Anderen weg, ohne Seitenblick dahin zu sehen, ohne Nebengedanken daran zu denken: auf und an den Namen Jesus Christus und die in ihm beschlossene Existenz und Geschichte des Volkes Gottes, an das Gottesgeheimnis dieses Namens und dieser Geschichte, dieses Hauptes und dieses Leibes." 그리고 pp.62-63에서도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다.

32) *KD*, II/2, 63-64.

33) *KD*, II/2, 64 : " die Erkenntnis der Erwaehlung nichts Anderes ist als eine bestimmte Form der Erkenntnis Jesu Christi."

의미는 결코 아니다. 바르트의 예수는 창조세계에 속하고 시간 안에 살다가 죽은 자이다.³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의 지식의 원천인 이유는 하나님이 피조물과 합일하는 하나님의 자기계시가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선택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수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르트에게 선택에 대한 지식은 인간 예수에 대한 지식과 일치한다.

바르트의 이러한 기본 전제가 그의 선택론을 지배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의 선택론은 전통적인 예정론과 근본적 차이를 가지게 되었다. 바르트에 의하면, 어거스틴, 칼빈 그리고 아퀴나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의 열쇠와 성취이며, 하나님의 모든 목적들의 참된 목표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했으나³⁵⁾ 그들은 철저하게 일관성 있게 인간 예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³⁶⁾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의 중심이며 동시에 예정의 전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심을 갖는 하나님의 예정과 그것의 전제를 별개의 것으로 간주했다.³⁷⁾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속에서 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하나님이 선택 배후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영원한 예정의 특별한 대상으로서 보았으나 그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 인류 전체, 인간 개개인 자체의 총합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람으로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³⁸⁾ 바르

34) *KD*, IV, 50,51,53.

35) *KD*, II/2, 161.

36) *KD*, II/2, 161.

37) *KD*, II/2, 162. : "Das Werk Gottes mit seiner Mitte in Jesus Christus war ihnen Eines, die ewige Voraussetzung dieses Werkes ein Anderes."

38) *Ibid*.

트에 의하면, 과거의 예정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측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역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 없이는 하나님에 관한 것도 사람에게 관한 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으나,³⁹⁾ 그들은 이러한 관점을 예정론에 철저하게 적용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⁴⁰⁾ 결국 바르트는 전통적 선택론이 예정의 주체와 객체, 선택하시는 하나님과 선택된 인간을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오류에 빠졌다는 것이다.⁴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없이는 어떤 얼굴과 말도 우리에게 가지지 않는다면, 그는 역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그렇게 머문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된 사람에 대해 말하려고 할 때, 붙잡아야 하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사람(선택된)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아닐 수 있는가?⁴²⁾

전통적 이해에서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은 신적 전능, 지혜, 의 그리고 자비에 따라서 자유롭게 명령하시는 가장 높은 존재이지만 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존재이다.⁴³⁾ 그리고 전통적 이해가 말하는 선택된 인간도 역시 알려지지 않은 존재이다.⁴⁴⁾ 이러한 선택론은 성경적 이해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39) *KD*, II/2, 163.

40) *KD*, II/2, 164.

41) *Ibid.*

42) *Ibid.* : "Ohne die Gestalt Jesu Christi hat fuer uns auch der dreinige Gott kein Gesicht und keine Sprache, ist und bleibt auch er uns der unbekante Gott., und wenn wir den erwahlenden Gott nicht kennen, an wen sollen wir uns dann halten, wenn von dem erwahlten Menschen die Rede ist, wie sollte uns dann nicht auch dieser ein Unbekannter sein muessen."

43) *KD*, II/2, 158 : " dann ist dieser Gott letztlich und im Grunde eine uns unbekante Groesse."

과 사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라기보다는 존재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철학의 산물이라고 바르트는 주장한다.⁴⁵⁾

바르트에 의하면, 전통적인 예정론은 선택의 이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말씀 배후에 있는 높고 깊은 지식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간 안에서 선포되고 육이 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영원성 이외의 다른 영원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⁴⁶⁾ 다른 모든 교리와 마찬가지로 예정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론적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바르트는 말한다.⁴⁷⁾

그러나 칼뱅을 포함한 전통적 예정론자들은 바르트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배후에 있는 또 다른 말씀을 추구한

44)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르트가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가 신비(Geheimnis)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떤 신비냐는 것이다. 어둠의 신비냐 아니면 빛의 신비냐는 것이다. 바르트는 "불가해한 빛이나 불가해한 어둠이냐"(unbegreifliches Licht oder unbegreifliche Finsternis)는 표현을 사용했다. -Ibid.

45) *KD*, II/2, 160, 165.

46) Ibid.

47) “우리가 이제 아래의 명제를 대변해야 한다면, 우리는 저 최상의 신학자들과 일치할 것이다: (그 명제는 다음과 같다) 성경이 인간의 구원이라고 칭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 단번에 수행한 구원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성경이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의 머리와 주체를 가지는 이 땅의 몸의 생명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성경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칭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심판을 위해 재림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묻는다. : 왜 그리고 무슨 권리로 갑자기 동일한 성경이 예정과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의 이해와 표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명제를 구성해야 하는가?” - *KD*, II/2, 166. ()는 본인의 첨가이다.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성경의 증언 전체를 충실히 받아들인 것이며 바르트의 예수 이해로는 성경이 말하는 선택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바르트의 성경이해와 칼뱅의 성경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르며, 바르트의 예수 이해와 전통적인 예정론자들의 예수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바르트가 아무리 성경을 하나님의 선택론 이해의 원천이라고 말할 지라도 그가 말하는 성경은 칼뱅을 포함한 전통적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성경과는 다르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과 일치시키지 않는다. 바르트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문자와 혹은 성경화 될 수 없고 따라서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될 뿐이다.⁴⁸⁾

그래서 바르트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가 아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간주했던 예수 그리스도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르트에게 있어서 선택론의 원천과 일차자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이해한 인간 예수이고 이차적으로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성경이 선택론의 원천이 된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바르트가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 신인합일의 정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 아니다. 이러한 바르트의 그리스도 일원론적 성경해석은 성경의 내용 자체와 충돌한다. 바르트가 선택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대상이라고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 안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자이다. 그는 삼위일체의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 아니며 성육신하시기 전에 말씀이시던 분도 아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르트는 인간 예수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변적인 것으로 평가절하

48) *KD*, I/1 116, 120.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바르트의 선택론 정의

바르트는 자신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택론을 출발한다. 바르트는 선택론이 복음의 총화라고 말한다. 왜, 선택론이 복음이며 복음이 되는가? 바르트 자신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⁴⁹⁾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할 대상, 자신의 사랑을 받을 대상인 피조물이 자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피조물을 자신의 존재에 동참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기 결정이 바로 선택이므로 선택은 복음의 총화이다. 그러나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선택하셔서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선택론이 복음인 것이 아니다. 아래의 바르트의 선택론 정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바르트가 말하는 죄인에 대한 사랑은 죄인을 죄와 심판에서 건져주는 사랑이 아니다. 앞에서 우리는 바르트가 선택론의 내용적 출발점과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발생한 신인합일로 삼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자신의 전체에 의해서 선택론을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의 선택론 전체를 이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2.1. 바르트의 선택 이해

바르트는 자신의 교의학에서 선택을 이렇게 정의한다. “은혜의 선택이란 하나님

49) *KD*, II/2, 1. "dass Gott den Menschen waehlt und also auch fuer ihn der in Freiheit Liebende ist."

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자신의 언약의 상대자로 삼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을 위해 죄인을 선택하셔서 언약관계를 맺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결정이다.” 바르트는 이러한 정의를 다시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기와 그 모든 결과들은 스스로 취하시고 이에 반해서 그 죄인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 선택이다.⁵⁰⁾

선택론에 관한 바르트의 이러한 정의는 전통적인 선택론과 그 내용에 있어서 매우 다르다. 상세히 살펴보지 않고도 금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선택론은 의미론적 혼란을 야기한다.⁵¹⁾ 그는 기존의 교리 용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그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빼버림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개선하고 있다. 바르트는 선택을 죄인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의 내리며 하나님의 선택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자신의 영광 내지는 존재에 동참시키기 위해 “자신을 선택하는 자기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바르트가 이해하는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를 통보하고 신화시키도록 작정한 하나님의 자기 결정이 바로 선택이며 이러한 신인합일을 인간 예수 안에서 이루시기로 영원 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작정에서 언약은 첫 번째 위치를

50) “Die Gnadenwahl ist der ewige Anfang aller Wege und Werke Gottes in Jesus Christus, in welchem Gott in freier Gnade sich selber fuer den suendigen Menschen und den suendigen Menschen fuer sich bestimmt und also die Verwerfung des Menschen mit allen ihren Folgen auf sich selber nimmt und den Menschen erwählt **zur Teilnahme an seiner eigenen Herrlichkeit.**” - *KD*, II/2, 101. (**강조**는 본인의 첨가)

51) 이러한 의미론적 혼란은 바르트의 예정론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다.

차지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 언약은 모든 것에 선행하는 것이다. 바르트는 언약 이해에 있어서 전통적인 질서인 “창조-언약-타락”을 “언약-창조-타락”의 순서로 바꾸어 이해한다.⁵²⁾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피조물이 맺은 언약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선행하며 바르트의 표현을 쓴다면 창조는 언약 자체가 아니며⁵³⁾ 언약이 창조의 내적인 근거라는 것이다. 바르트의 이해에 의하면 창조는 창조 그 자체를 위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주시어 자신의 존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드신 것이다. 창조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피조물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결정(이것이 예정이다.)이 실현된 것이고 예정이란 창조의 내적 근거가 되는 언약을 맺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다. 바르트에게 이러한 언약체결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신인합일이며 이러한 신인합일을 인간 예수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결정은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이거나 추가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며 근본적인 결정이며 첫 번째 결정이다. 피조물과 언약을 맺어서 자신의 존재를 주어 신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은 창조에 앞서는 창조의 내적 근거이다.

2.2.2. 바르트의 은혜 이해

바르트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결정인 선택이 은혜라고 말한다. 왜 선택이 은혜이고 복음의 총화가 될 수 있는가? 바르트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의 흘러넘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이해하며⁵⁴⁾ 더 나아가서 은혜를 “하나

52) *The Creation-Mediatorship of Jesus Christ*, 35.

53) *KD*, III/1, 106.

님 자신의 완전한 신적인 영광을 인간과 공유하기(in seiner ganzen goettlichen Herrlichkeit mit einem Anderen zusammen sein)로 하신 것”으로 정의 내린다.⁵⁵⁾ 결국 바르트에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요구할 수 없고 합당하지 않은 피조물에게 자신의 존재를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결정의 내용이므로 선택은 은혜의 선택이고 복음의 총화가 되는 것이다. 선택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언약관계 속에 들어가시는 자기 결정을 의미하며 이것은 어떤 피조물도 요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 결정이며 주권적인 행동이다.⁵⁶⁾ 어떤 인간도 요구하지 않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예수 안에서 인간과 언약을 세우시고 관계를 맺어 인간을 신화시키기로 한 이 원래 결정이 바로 선택이며 따라서 선택은 은혜이다.⁵⁷⁾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타자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자를 자신의 존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타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결정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선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조물과의 언약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호의 자체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⁸⁾ 하나님 자신을 피조물에게 주시는

54) *KD*, II/2, 9

55) *Ibid.*

56) *KD*, II/2, 8 : "Die Zuwendung zum Menschen, zu diesem Menschen Jesus von Nazareth und zu dem in ihm repraesentierten Menschenvolk, in der er diese Entscheidung vollzieht, ist ein goettlicher Souveraenitaetsakt."

57) *Ibid.* "Dass Gott jene Zuwendung vollzieht, diese Bundesstiftung, seine Urentscheidung <<in Jesus Christus>>, die der Grund und das Ziel aller seiner Werke ist, das ist Gnade."

58) *Ibid.*

결정 이것이 바로 선택이며 이것이 바로 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은혜는 알파와 오메가이다.”⁵⁹⁾ 하나님 자신을 피조물에게 주는 결정, 피조물을 자기 자신에게 동참시키는 결정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므로 선택교리는 복음의 총화이고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⁶⁰⁾ 전통적인 예정론에서 은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작정을 하시되 죄인의 자체적인 능력과 상황을 일절 선택의 조건으로 고려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바르트에게 선택이 은혜의 선택인 이유는, 신이 되는 것이 가당치 않는 피조물의 신화 이것이 바로 바르트가 말하는 은혜이다.

2.2.3.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그런데 바르트는 이러한 선택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다.”⁶¹⁾ 왜냐하면 바르트에게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죄인과 언약을 맺기로 한 결정이고 하나님은 이 언약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죄인과 하나님께서 하나 되기로 한 하나님의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도록 작정하심이 예정이다. 전통적 선택론은 그 용어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영원한 작정이다. 그러나 바르트의 선택론은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와 무관하게 전개된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결정을 선택하셨다.

59) Ibid.

60) Ibid. "Die Lehre von Gotters Gnadenwahl ist die Summe des Evangelium. Sie ist begriff der frohen Botshaft, die Jesus Christus heisst."

61) *KD*, II/2, 110, "die goettliche Praedestination ist die Erwaehlung Jesu Christi."

이러한 신인합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결정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람과 묶으시는 결정”이 선택이다.⁶²⁾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과 사람의 본질이 만나 하나가 되는 지점이다.⁶³⁾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유라고 말한다.⁶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그리스도를 넘어 가거나 분리되어 떠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 결정 그리고 선택이란 없다는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내적이고 영원한 본질과 일치한다.⁶⁵⁾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과 연합하기로 결정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이고 작정이다. 이로보건데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일정한 관계를 맺기로 결정한 것 그 자체를 선택으로 이해하고 있다.

바르트는 예수 안에서 피조물들을 자신과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며 하나님의 내적 본질과 일치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피조물을 본성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다. 왜냐하면 바르트의 하나님 이해에 의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단일하신 분이시기

62) Ibid.

63) Ibid. "Wie das Wesen Gottes sein Wesen ist, so ist das Wesen des Menschen urspruenglich sein Wesen." 바르트는 하나님의 본질이 예수의 본질인 것처럼 인간의 본질이 예수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64) *KD*, II/2, 110.

65) *KD*, II/2, 102.

때문이다.⁶⁶⁾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할 피조물을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은 한 분 이시기 때문에 자기 이외의 다른 대상을 필요로 하신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 자신이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 있기로 한 영원한 작정이 바로 선택이며 그러한 작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성을 완전하게 표현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하나 되어 자신의 존재를 나누어주도록 결정하셨기 때문에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로 향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이다.”⁶⁷⁾라고 표현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관계 맺음을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신적인 관계 자체이다.”⁶⁸⁾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안에서 죄인에게 은혜로우시기로 한 것,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죄인과 묶어서 죄인을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목표이며 의미로서 태초에 결정된 것이다.⁶⁹⁾

그런데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인 신인합일을 성취하기로 한 이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66) "Another reason why God wants to have an object of His love is that God is the only one divine Being. God is one; therefore, He wants to have a counterpart beside Himself..... The unique one divine Being does not want to be alone. Therefore, as the unique divine Being God wants to have a correspondence in a created counterpart." - Chul Won Suh, *The Creation-Mediatorship of Jesus Christ*, p. 36-37 cf, *KD*, III/1, 204.

67) *KD*. II/2, 5 : "Jesus Christus ist ja Gott in seiner Zuwendung zum Menschen,"

68) *KD*, II/2, 6.

69) *KD*, II/2, 108-109.

그는(예수는) 특별한 신적 관계로 구별된 인간이며 그의 삶은 진정한 선택의 진정한 실행이다..... 하나님은 모든 타자들 앞에서 그리고 구별되게 그를(예수를) 자기의 아들과 친구로 불렀다. 그러므로 선택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예수가 우선적이고 본래적으로 선택된 자이고 그들은 예수의 선택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⁷⁰⁾

여기서 바르트는 인간 예수가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로 말미암아서 구별된 인간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특별한 신적관계란 무엇인가? 바르트의 그 다음 설명이 지적해주듯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인합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차원에서 예수는 구별된 자이다. 예수는 시간 안에서 살다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제일 처음부터 존재하는 자이고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과 친구로 불리 운 자이다.” 시간 안에서 살다가 죽은 역사적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가 역사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는 가장 먼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 예수를 독특한 존재로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다.

바르트는 선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바르트에 의하면, 선택의 목적은 선택된 자를 영생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영벌로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⁷¹⁾ 선택의

70) “Er ist **der durch jenes besondere Gottesverhaeltnis ausgezeichnete Mensch**. Sein Leben ist die echte Vollstreckung echter Erwaehlung..... Ihn hat Gott vor den Anderen und im Unterschied zu ihnen seinen Sohn und Freund gennant. Er ist der erwaelte Einzelne. Gibt es Andere, die das au ch sind, dann daraufhin, dann dank und kraft dessen, dass er es zuerst und eigentlich ist, dann eingeschlossen in seine Erwaehlung.” - **강조**는 본인의 첨가 *KD*, II/2, 387.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자신의 언약의 상대자로 삼으시는 것이며 인간 예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존재에 동참시키기 위한 것이다. 바르트는 이것을 하나님과 피조물의 화해라고 말한다.⁷²⁾ 이것이 선택의 궁극적 목적이다. 바르트에 따르면, 선택의 목적은 속죄로 말미암는 죄인의 구원이나 원래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다. 전통적인 개혁신학이 의미하는 구원이 아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선택의 궁극적 목적은 부정적으로는 **피조성을 초월**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는 것이다.⁷³⁾ 결국 선택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결합으로 인한 인간의 신 됨이 창조 전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결정된 것이다.⁷⁴⁾ 선택은 죄인이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며 궁극적 계획 이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71) 이에 비해 박형룡은 선택의 궁극적 목적을 최종목적과 근재목적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선택의 최종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선택의 가까운 목적은 피택자의 구원이다. 박형룡, 『박형룡 박사저작전집II』 (서울: 한국기독교 연구원, 1977), 292

72) 바르트에게 있어서 선택론과 화해론은 분리될 수 없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래서 Douglas R. Scharp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God's eternal election is the basis and presupposition of reconciliation and reconciliation is the execution of election in history..... there is such frequent and explicit reference to election in the discussion of reconciliation in *C.D.* IV,1." - Douglas R. Sharp, *The Hermeneutics of Election*.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0), 207.

73) "und den Menschen erwählt **zur Teilnahme an seiner eigenen Herrlichkeit.**" - *KD*, II/2, 101.

"..... der **ihre Geschoepflichkeit als solche transzendiert.**" - *KD*, IV/1, 44.

".....Gott selbst an unsere Stelle getreten ist, den Frieden zwischen sich und uns selbst geschlossen, unser Heil, d. h. **unsere Teilnahme an seinem Sein durch sich selbst** verwirklicht hat." - *KD*, IV/1,14. (강조는 본인의 첨가)

74) "..... reconciliation in Jesus Christus has been pre-ordained and placed above the creation and providence of God and the work of the right hand of God, and of His positive will....." - *The Creation-Mediatorship of Jesus Christ*, 71

바르트에 의하면 이러한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적인 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다.⁷⁵⁾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이중적인 의미로 설명한다.⁷⁶⁾ 한 편은 선택하는 주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한편은 선택받은 대상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는 선택받은 인간 이다.” 라는 두 문장으로 설명한다.

2.2.3.1 예수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예수가 삼위 일체 하나님의 제2위로서 성부와 함께 선택의 주체라는 의미인가?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는 성자의 성육신이 아니다. 그런데 바르트는 왜 예수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가? 바르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자신을 주셔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과 다른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신인합일을 위해서 예정하셨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영원하며 제일 처음부터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에 제한적인 존재인 인간 예수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르트의 이러한 명제는 기존의 선택론을 비판하면서 출발한다. 바르트는 예수

75) *KD*, II/2, 110.

76) *Ibid*,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자기 안에 이중성을 포함한다(Und so schliesst ja auch der Name Jesus Christus ein Doppelpes in sich).”

그리스도를 통해 발생한 신인합일을 선택의 핵심내용이라는 것을 잊고 선택의 원인과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신적 호의)으로 볼 경우 선택을 절대적 섭리로 이해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⁷⁷⁾ 이렇게 되면 은혜의 자유와 보편성을 보는데 실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의 대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주체가 되면, 기존의 절대적 섭리를 몰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⁷⁸⁾

바르트는 인간과 하나님의 하나 됨이 인간 예수를 통해서 발생하도록 결정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만이 절대적 섭리로서의 기존의 선택론을 극복할 수 있고 진정한 은혜의 선택론을 개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택론은 예전부터 하나님의 자유, 신비 그리고 의와 관련되어 고찰되어왔으나 기존의 선택론처럼 예수 안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난 신인합일이라는 원결정과 선택 배후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리하면 하나님의 자유, 신비 그리고 의를 성경적으로가 아니라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며, 하나님의 자유와 신비 그리고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

77) 계시된 하나님과 감춰진 하나님의 문제가 바르트의 선택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문제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그의 화해론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한다. 선택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배후에 있는 감춰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일치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선택된 인간이라는 사실은,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발생할 수도 인식할 수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화해를 수행하시는 화해의 주체 이시다. ("..... Jesus Christus nicht nur das Subjekt des Versoehungsgeschehens, sondern sein ewiger und urspruenlicher Grund ist....." - KD, IV, 57.) 바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화해의 주체는 Logos asarkos나 Deus absconditus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 *The Creation-Mediatorship of Jesus Christ*, 72-73.

78) KD, II/2, 111.

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의 차원에서 볼 때에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

우선 바르트는 하나님의 자유를 자신의 선택론에 기초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바르트에 의하면 신적 자유는 바로 “선택의 그럼에도 불구하고(Dennoch)에 있다.”⁷⁹⁾ 피조물이 자신의 피조성의 한계와 죄의 한계⁸⁰⁾ 안에서 하나님께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신 존재 동참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 바로 선택의 자유이다.⁸¹⁾ 선택의 자유는 피조물에게 “예”를 말하고 자기 자신에게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자유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대신하는 자유이다.⁸²⁾ 이것은 선택에 관하여서 전통적 개혁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와 다르다. 바르트가 선택에서 말하는 자유는 명목상의 자유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자신의 존재에 동참시키는 자유는 바르트의 신론에 의하면 자유가 아니라 한 인격 한 하나님의 본성에 필연적인 것이다. 단일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피조물을 필연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바르트가 말하는 선택에 나타난 자유는 필연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신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르트에 의하면, 신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선택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바르트는 이러

79) *KD*, II/2, 29 : "In diesem Dennoch besteht die Erwählung. Sie ist ja Erwählung. Sie ist ja Gnade und also frei."

80) 바르트에게는 피조물의 한계가 바로 죄의 한계이다. 결국 바르트에게 구원은 성경적 의미에서 죄책의 제거와 그 결과인 심판의 형벌의 면제가 아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 존재에 동참하는 것이 구원이다.

81) *KD*, II/2, 28.

82) *KD*, II/2, 30 : ".....so steht Gott in seiner Freiheit ein fuer ihn....."

한 선택의 신비가 전통적 의미의 신적 호의의 불가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피조물에게 불가해하지만 우리를 불안이나 절망 속에 빠트리지는 않기 때문이다.⁸³⁾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궁극적인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결정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에게 전적인 “예”를 말하는 것 이고 이 전적인 예는 피조물에게 자신의 존재를 주는 것이고 따라서 피조물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서 신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은 피조물에게 절대적이고 영원한 평안의 근거가 된다.⁸⁴⁾ 칼뱅도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지식이 선택된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굳건한 평강에 유익이 된다고 말한바 있다.⁸⁵⁾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바르트는 자신의 선택론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바르트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말한다.⁸⁶⁾ 그러나 바르트가 말하는 심판은 전통적인 예정론자들이 주장한 선택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전혀 다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땅한 형벌로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간과함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이다. 이에 반해서 바르트가 말하는 심판은 피조물에게 가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의 피조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는 피조물의 연약함과 죄인의 한계

83) *KD*, II/2, 32 : " Es setzt uns in Bewegung, aber es stuerzt uns nicht in Unruhe."

84) *Ibid.* : " Indem er Ja sagt zu ihm, ist Ja zu ihm gesagt: nicht vorlaeufig, sondern abschliessend, nicht in halber, sondern in ganzer, nicht in zeitlicher, sondern in ewiger Treue."

85) Fred H. Kooster,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p. 56

86) *KD*, II/2, 34 : " Sie bedeutet zunaechst zweifellos dies, dass Gott in diesem seinem Tun ueber sein Geschoepf Gericht haelt."

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것들과 하나 되겠다는 열심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바르트의 선택론에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의 심판, 율법의 성취, 죄의 용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주심으로 피조물을 고양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수께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때, 바르트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 성취되었고 예수 안에서 발생한 피조물의 신 존재에의 동참과 무관한 그 어떤 다른 섭리나 계획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화해 이외에 다른 것이 결코 아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신적 호의 그 자체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바르트는 예수를 단지 선택된 자 일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선택하시는 분이라고 말한다.⁸⁷⁾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신인합일과 무관한 신성 자체란 존재하지 않는다.⁸⁸⁾ 이것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인 신인합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발생한 신인합일 배후에 있는 절대적 신의 섭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분리된 하나님의 의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선택의 현현이고 거울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⁸⁹⁾

87) *KD*, II/2, 112. " Und so ist er nicht nur Gewaehlter, sondern selbst Waehlender."

88)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선택의 주체이다. 이 개념은 바르트가 이해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 *The Christian Doctrine of God*, 347.

89) *KD*, II/2, 123-124.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르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확실하다.⁹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의 주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2위가

90) 바르트는 전통적인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며 선택의 주체임을 놓쳤기 때문에 “절대적 섭리”의 문제에 빠졌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들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의 선택을 수동적 관계와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에 제한시켰다.” 바르트에 의하면 인간 예수의 선택만을 생각하고 그 선택을 앞서는 성자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은혜의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분리시키게 되고 결국 절대적 섭리에 관한 사변으로 빠지고 만다. - *KD*, II/2, 114-115.

바르트의 칼빈 비판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 바르트는 칼빈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선택하시는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는 어떤 신(*Deus nudus absconditus*)이다. - *KD*, II/2, 119.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은혜의 근거와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해서 생각할 때, 일반적인 그래서 공허한 신적인 자의나 일반적인 그래서 공허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한다. 선택을 자유로운 은혜로 묘사되고 이해하려면 선택을 하나님의 독특한 사역이라고 묘사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KD*, II/2, 120. 바르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의 주체로 이해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상급심(*hoeheren Instanz*: 여기서 상급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배후에 있는 성부의 감춰져 있는 일반적인 절대적 섭리를 의미하고 있다-본인 주)의 결정에 관한 질문이 남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된 것이 된다. 그리스도는 선택의 기초가 아니라 구원의 기초가 된다.” - *KD*, II/2, 121.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의 주체로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의 비밀스런 결정, 자기 자신의 신앙, 내적인 성령의 증거, 신앙의 행위를 검사함으로써 자신의 신앙과 선택을 확인하는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개혁파 신비주의나 세속적 금욕주의와 근면의 개혁주의 윤리의 뿌리가 되었다. - *Ibid*.

그렇다면 교리사적으로 이러한 절대적 섭리, 선택의 임시적 작용인(*causa efficiens impulsiva electionis*) 개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는가? 바르트에 따르면 극복의 시도를 한 대표적인 사람은 록세이우스이다. 바르트는 록세이우스의 생각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1. 선택의 섭리와 구원의 섭리는 동일하다. 2. 구원섭리는 아들의 보냄과 백성 자체에 방향 지워져 있다. 3.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와 성령과 마찬가지로 신적인 주체로서 구원 섭리에 참여

성육신하여 성부와 함께 선택을 하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바르트에게 하나님은 전통적 의미의 삼위일체가 아니라 단일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로고스 일수가 없다.⁹¹⁾ 바르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자신을 주셔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행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수행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참모습이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재로는 시간 내의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원하고 궁극적인 작정 속에서는 제일 처음이며 근원이라는 의미에서 그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르트에 의하면, 시간 전의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는 시간 안에 자신을 드러내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같은 것이다.⁹²⁾ 하나님은 영원하시되 영원 전부터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를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영원 전부터 피조물을 원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 안에서 피조물에게 자신을 주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분이시다.⁹³⁾ 영원한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바로 계시하신 대로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떠나서는 다른 하

한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 선택된 자이며 선택하시는 자이다. - *KD*, II/2, 122-123.

91) "God is one.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presuppose that the Son of God is just the eternal Logos." - *The Creation-Mediatorship of Jesus Christ*, 73.

92) 크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도하신 것이 목적이요 마지막이라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것이라고 말한다. "Was Gottes Ziel mit Mensch und Welt ist, dies Letzte, muss auch bereits das Erste sein." - Walter Kreck, *Grundentscheidungen in Karl Barths Dogmatik*,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191.

93) *KD*, II/2, 170.

하나님은 알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인 선택은 신적인 절대 작정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생한다.

2.2.3.2. 선택된 인간 예수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와 선택된 인간 예수의 이중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된 사람이다.” 라는 명제를 무슨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 우선 바르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그 자체는,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실재성에 앞서고 우리 시간안의 모든 존재와 발생에 앞서고 우리의 시간 자체에 앞서며 하나님의 전 시간적 영원성 속에서, 하나의 피조적 실존 즉 인간 나사렛 예수와 그의 삶과 죽음에서 그리고 그의 낮아짐과 높아지심, 순종과 섬김에서 그의 사역 안에서 대상과 내용으로 가진다. 그리고 신적인 영원한 결정 그 자체는 이 피조물(예수)의 실존 안에서 그리고 그 실존과 함께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의 성취와 모든 인간의 구원을 그 대상과 내용으로 가진다. 이 사람(예수)은 그 기능 안에서 영원한 신적 선택과 예정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된 어떤 자(ein Erwählter)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바로 그 자(der Erwählte Gottes)이다.⁹⁴⁾

94) *KD*, II/2, 125 : "Er(dieser zweite Satz) sagt, dass die ewige goettliche Entscheidung als solche und also vor aller Weltwirklichkeit, vor allem Sein und Geschehen in unserer Zeit, vor dieser unserer Zeit selber, in Gottes vorzeitlicher Ewigkeit die Existenz dieses einen Geschoepfs, den Menschen Jesus von Nazareth, sein Werk in seinem Leben und Sterben, in seiner Erniedrigung und Erhoehung, seinen Gehorsam und sein Verdienst und dass sie in und mit der Existenz dieses Geschoepfs den

바르트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 “피조적 실존인 인간 나사렛 예수”와 일치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 문장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원하며 궁극적인 불변의 뜻은 피조물에게 자신의 존재를 줌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인합일을 이루어 신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 자체에 앞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역사에 속하는 “피조적 실존인 인간 예수”와 일치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뜻인 신인합일을 예수 안에서 성취하기로 결정하시되 처음부터 예수를 신인합일을 위해 구별해서 예정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는 독보적이며 구별되고 여러 택자들 중의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바로 그 자(der Erwählte Gottes)”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 예수의 역사적 삶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궁극적 목적인 피조물과의 화해가 발생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다는 의미이다. 인간 예수의 선택과 무관한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고 인간 예수의 선택은 모든 선택을 포괄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머리이며 주인이요 이러한 신인합일의 수단으로 선택된 자이기 때문이다.⁹⁵⁾ 이런 의미에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선택된 자들 위에 있는 원래적으로 택함 받은 자라고 말한다. 바르트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4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이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Vollzug des goettlichen Bundes mit den Menschen, das Heil aller Menschen zum Gegenstand und Inhalt hat. Dieser Mensch in dieser Funktion ist der Gegenstand der ewigen goettlichen Erwaehlung und Vorherbestimmung. Jesus Christus ist also nicht nur ein Erwaehlter, sondern der Erwaehlte Gottes. " 번역의 (예수)는 본인의 첨가

95) *KD*, II/2, 124.

와 함께 선택되었다거나 그를 통해서 선택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가 선택된 인간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단지 선택의 도구와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그 안에서”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의 인격과 사역과 삶 안에서 하나님의 신인합일이 완전하게 나타났고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⁹⁶⁾ 그래서 그의 선택은 원래적이면서 포괄적이며 유일무이(einzigartig)하면서도 보편적이다.

인간 예수의 선택이 유일무이하면서 보편적인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지거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성육신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를 자신의 언약의 상대자로 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바르트의 명제를 살펴볼 때 확인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화해의 말씀이며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예수가 본래적으로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가 선택된 인간으로 특별한 존재인 이유는 그가 원래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운 작정 때문에 그러하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은혜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의 몸과 지체가 되고 그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를 신앙하는 자가 된다.⁹⁷⁾

96) *KD*, II/2, 125 : " <<In ihm>> heisst : in seiner Person, in seinem Willen, in seinem eigenen goettlichen Erwaehlen, in der Grundentscheidung Gottes, die er jedem Menschen gegenueber zur Vollstreckung bringt. "

97) 여기서 바르트는 양자론을 주장한다. "Es gibt kein seiner Erwaehlung zum Sohne Gottes voran gehendes Verdienst, keine vorher und an sich schon bestehende Guete, kein seine Erwaehlung herbeirufendes und bedingendes Gebet oder Glaubensleben dieses Menschen Jesus. Durch das Werk des Wortes, durch den Heiligen Geistes ist er suendlos empfangen und geboren, ist er, der er ist, Gottes Sohn: allein durch Gnade

예수가 하나님의 신인합일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이며 따라서 예수의 선택의 전 과정이 은혜이다.⁹⁸⁾

바르트가 예수를 선택된 인간이라고 말할 때, 그는 다음의 몇 가지 의미를 그 명제 안에 포함시킨다.

우선, 예수가 선택된 자라는 의미는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이란 의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길과 사역의 시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의 주심과 피조물 된 인간의 신 존재 동참을 원하시고 결정하시되 예수 안에서 이것을 이루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증여이고 은혜이다.⁹⁹⁾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는 실제로 영원부터 있는 존재이거나 창조 전에 처음부터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처음부터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 중의 만물이며 장남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내적인 영광이 흘러넘**

also." -*KD*, II/2, 126-127 이 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어떤 내적 자질이나 공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는 무죄하게 잉태되었고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예수가 되었다는 성경의 증언에 반대되는 증언, 곧 인간 예수가 성령과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칼뱅은 그리스도가 선택받은 자인 사실과 그리스도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충돌한다고 이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칼뱅은 하나님의아들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하지 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Institutes*, II, 14.

98) *KD*, II/2, 126 : " Wir erkennen in der Praedestination des Menschen Jesus, was Praedestination immer und ueberall ist: An- und Aufnahme des Menschen durch Gottes freie Gnade allein.

99) *KD*, II/2, 130 : " Das ist mehr als Guete und Herablassung. Das ist Selbsthingabe."

치도록 피조물을 원하셨고 그것을 예수 안에서 가능하게 하셨으므로 예수는 모든 피조물에 앞서는 첫 번째이면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의 장남인 것이다.¹⁰⁰⁾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와 영광을 피조물에게 나누어 주시되 인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예수의 선택의 의미이다. 선택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선택하시는 분에게 참여하는 것이고 그의 자녀 됨에 참여하는 것이다.¹⁰¹⁾

둘째, 인간 예수의 선택은 고난에로의 선택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빌립보서 2:6 절에 등장하는 예수의 죽기까지의 순종은 태초에 이미 정해진 신적인 결정이며 인간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태초의 영원한 결정이라고 말한다. 예수 안에서 피조물에게 향해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전부터 고난의 형태를 필연적으로 가진다는 것이다.¹⁰²⁾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죄와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 예수가 영원 전부터 고난에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과의 합일과 그로 말미암은 피조성의 극복을 처음부터 의도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¹⁰³⁾ 이러한 피조성의 극복이 인간 예수의 선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연약한 피조물과의 연약의 체결은 필연적으로 고난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원하지 않아서 버리기로 작정한 것들을 인간은 스스로

100) *KD*, II/2, 130 : "Dass er sich daran nicht genuegen laesst, dass **seine innere Herrlichkeit ueberstroemt und aeusserlich wird**, dass er die Schoepfung will und als Erstling der ganzen Schoepjung den Menschen Jesus, das ist Gnade, souveraene Guete." (강조는 본인의 첨가).

101) Ibid.

102) *KD*, II/2, 131 : " Die <<in ihm>> dem Geschoepf zugewendete freie Gnade Gottes hat zum vornherein (von Ewigkeit her!) **diese Gestalt**." (강조는 본인의 첨가).

103) 바르트에 의하면 사단 혹은 반역한 천사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지 않은 가능성의 총체이며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한 피조물의 자기 오해와 오용의 총체이다. - Ibid.

버리고 극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또한 불완전한 피조물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신화에 도달할 수 없고 자신의 피조성을 극복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택된 인간 예수 안에서 이것을 하실 수 있다.¹⁰⁴⁾

바르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의 피조성을 모욕했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심판뿐이다.¹⁰⁵⁾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피조성의 한계를 가진 사람을 영원 전부터 인간 예수 안에서 사랑했고 자기와의 언약으로 선택하셨다.¹⁰⁶⁾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초한 유기와 심판과 죽음을 예수에게 영원 전에 주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선택이며 고난에로의 영원한 선택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선택은 필연적으로 고난의 형태를 가진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그 안에 이미 성 금요일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¹⁰⁷⁾

104) Ibid. : " Der Mensch an sich und als solcher, konfrontiert mit dem Satan und seinem Reich, hat nun einmal in seiner geschoepflichen Freiheit die Macht nicht, seinerseits zu verwerfen, was Gott in seiner goettlichen Freiheit verwirft und also der Versuchung gegenueber die Guete seiner Schoepfung und seiner Bestimmung zum Bilde Gottes zu behaupten. Der erwaehlte Mensch Jesus tut es"

그런데 여기서 바르트는 인간의 피조성을 죄의 불가피성과 연결하고 있다. 바르트에 의하면 아담의 피조성은 그의 언약함을 의미하고 이것은 죄의 불가피성으로 연결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105) *KD*, II/2, 131-132.

106) *KD*, II/2, 132. : "Aber eben diesen Menschen an sich und als solchen hat Gott ja in und mit der Erwaehlung des Menschen Jesus von Ewigkeit her geliebt und zum Bunde mit sich selber erwaehlt !"

107) *KD*, II/2, 131

여기서 바르트는 선택의 목적을 죄에서의 구원으로 보고 있지 않다. 바르트에 의하면, 선택의 목적은 피조성의 한계로 부터의 해방이며 신 존재의 동참이다. 그도 표현상으로는 죄책과 그에 따른 심판의 제거를 말고 있으나 바르트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고난은 율법의 성취와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 원하지 않은 피조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바르트의 신학적 주장에 의하면 인간을 포함한 처음 창조는 그 자체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타락과 무관하게 고양될 필요가 이미 있었다.¹⁰⁸⁾ 불완전한 인간의 신 존재 동참이 선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는 예수는 세상의 시작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다.¹⁰⁹⁾ 예수는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형벌을 당한 것이 아님으로 예수는 속죄제물로서 어린양이 아니라 인간 고양과 신화의 희생양에 불과하다. 선택된 인간 예수가 고난 받고 죽어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피조성과 연약함과 죄성을 극복하고 자신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책임을 지시고 그 결과인 불완전과 피조적 한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심으로 피조물의 한계를 극복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자신의 원 결정을 이루심으로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다.

2.2.4. 바르트의 이중 예정

108) "Barth's theological argument is that the first creation is imperfect in itself." - *The Creation-Mediatorship of Jesus Christ*, 66

109) *KD*, II/2, 32 : "dass er die Gerechtigkeit Gottes an ihrer Stelle gegen sich selbst ihren Lauf nehmen lasse. Darum ist er <<das geschlachtete Lamm>> u.zw. von Anbeginn der Welt her. Darum ist der gekreuzigte Jesus das <<Ebenbild des unsichtbaren Gottes>>."

110) *KD*, II/2, 133.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선택하시는 하나님과 선택받은 인간의 이중성 속에서 이해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신인합일 하는 지점으로서 이중성을 가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신 한 선택의 능동적 규정이 그에게 해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된 인간인 한 그에게 선택의 수동적 규정이 타당하다.¹¹¹⁾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선택의 대상의 이중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도록 결정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선택한다. 하나님에 대한 선택과 사람에 관한 선택, 이 양자에 대한 선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교제를 위해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동시에 사람들이 자신과 사귀도록 사람을 선택하신다.¹¹²⁾ 그런데 바르트는 이러한 이중성을 선택의 주체와 객체라는 대상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적용시킨다.¹¹³⁾ 바르트는 선택과 유기라는 기존의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재구성하여 자신의 선택의 내용에 대해 이중적으로 설명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는 사람과 언약을 맺어 자신의 존재를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는 바르트의 예정 이해에서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바르트에 의하면 이것은 상실과 획득의 이중적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는 사람과 교제하고자 하시는 것이므로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에게는 상실을 인간에게는 획득을 의미한다.¹¹⁴⁾ 이러한 이중성을 바르트는 선택과 유기 of 이중예정으로 정의

111) Fred H. Klooster, *The Significance of Barth's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1), 55.

112) *KD*, II/2, 176.

113) *KD*, II/2, 177: "Aber wie sein Gegenstand ein doppelter und verschiedener ist, so offenbar auch sein Inhalt."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시지만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은 유기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과 하나 되도록 작정하셨으므로 인간이 극복해야 할 피조성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유기하신다. 하나님은 창조되었으나 불완전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대신 죄인을 고양시키기를 원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는 나사렛 예수의 출생과 그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부활 속에서 발생했으며, 이것이 바로 예정의 내용이며¹¹⁵⁾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은 “이중적 예정(*praedestinatio gemina*)”으로 죄인인 인간에게는 “예”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신에게는 “아니오”를 선언하는 것이다.¹¹⁶⁾

여기서 바르트가 말하는 이중예정은 전통적인 이중예정과는 전혀 다르다. 바르트에 의하면, 선택은 신인합일을 통해 인간을 신화하는 하나님의 자기 결정이기 때문에 선택은 하나님의 자기 제공을 내포한다. 신인합일은 인간에게는 무한한 획득과 유례없는 높임이지만 하나님께는 모험이며 희생이다.¹¹⁷⁾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파트너로 삼은 대상이 한계를 지닌 피조물이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선택의 대상이 된 사람은, 자기의 소명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킨 사람이 아니라 타락한 죄인이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존재다.¹¹⁸⁾ 이러한 존재를 자신의 언약의 상대자로 삼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각한 위험을 감수(*Kompromittierung*)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르트에 의하

114) “인간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상실을 원하셨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에게는 확실한 구원이요 하나님 자신에게는 위험한 모험이다” - *KD*, II/2, 176.

115) *KD*, II/2, 172-173.

116) *KD*, II/2, 176.

117) *Ibid.*

118) *KD*, II/2, 179.

면, 선택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시어, 스스로 피조물이 초래한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르트가 말하는 유기이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교제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 자신이 인간의 유기를 선택해서 예수 안에서 유기되도록 결정하셨음을 의미 한다.¹¹⁹⁾ 그러므로 바르트가 말하는 유기는 결코 인간에 대한 정당한 형벌로서 영벌에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

예정이 “아니오”를 말하는 한, 예정이 유기를 포함하는 한, 그것은 사람에게 말해진 “아니오”가 결코 아니며, 그것이 배제와 유기인 한, 그것은 인간의 배제와 유기가 아니다. 그것이 정죄와 죽음을 목표하는 한, 인간의 정죄와 죽음으로 방향 지워 있는 것이 아니다.¹²⁰⁾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유기하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피조성이며 인간을 신 존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피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희생이 바로 유기이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인간의 피조성과 그 에 따른 책임과 대가를 심판하여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고양시키는 방법이고 죄인인 인간을 자신의 존재에 동참시키는 방법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유기는 하나님께서 악을 처리하는 방법이지

119) *KD*, II/2, 179 : " in dem er die Gemeinschaft mit dem Menschen erwählt, dann koennen wir nur antworten, er waehlt unsere Verwerfung. Er machte sie zu der seinigen."

120) *Ibid.* : " Es ist also die Praedestination, sofern in ihr auch ein Nein ausgesprochen ist, auf alle Faelle kein den Menschen treffendes Nein. Sie ist, sofern sie auch Ausschluss und Verwerfung ist, nicht des Menschen Ausschluss und Verwerfung. Sie ist, sofern sie auch auf Verdammung und Tod zielt, nicht auf die Verdammung und den Tod des Menschen gerichtet."

다. 그런데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악을 처리하시되 악을 행한 죄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고 형벌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응분의 분노와 심판을 자신이 지심으로 악을 처리하신다.¹²¹⁾ 하나님은 그 죄인을 끌어안으셔서 그의 유기와 정죄와 죽음을 자신의 유기와 정죄와 죽음이 되도록 하심으로써 유기를 시행하신다.¹²²⁾ 그러므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의 칭의가 예정의 내용이라고 단언한다.¹²³⁾ 그러므로 바르트에게 있어서 사실상 칼뱅이 말한 의미의 이중 예정으로서의 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바르트가 말하는 유기는 인간이 유기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정죄가 -실제로-없다(롬8:1).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신앙은 그 자체로 : 인간의 유기 없음에 대한 신앙이고 자기의 유기를 불신앙 하는 것이다.** 인간이 유기되지 않는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섭리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유기되신다.¹²⁴⁾

바르트는 칼뱅이 로마서9장을 기초로 해서 가르쳤던 불 택자들의 유기를 단호히 명백하게 거절한다. 바르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영원

121) *KD*, II/2, 182.

122) *Ibid.*

123) *Ibid.*:" Eben diese Rechgertigung des Suenders in Jesus Christus ist der Inhalt der Praedestination, sofern diese ein Nein ausspricht, sofern sie Verwerfung bedeutet." 바르트는 여기서 영원한 칭의를 의미하는 것인가? 예정의 부정적 측면, 유기가 칭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라면 칭의 또한 영원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4) *Ibid.* : ".....darum ist nichts - wirklich nichts - Verdammliches an denen, die in Christus Jesus sind (Roem. 8, 1). **Darum heisst Glaube an Gottes Praedestination an sich und per se: Glaube an die Nicht Verwerfung des Menschen, Nicht-Glaube an seine Verwerfung.** Verworfen ist ja nicht der Mensch. Verworfen ist in Gottes ewigen Ratschluss in seinem Sohne Got selber." (**강조**는 본인이 첨가).

한 결정인 신인합일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 문자 그대로의 유기는 없는 것이고 선택의 절대적 승리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사렛 예수가 죽기 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 실현된 하나님의 의지에 비추어 볼 때, 바르트는 선택의 긍정적인 면만이 인간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언한다.¹²⁵⁾ 선택에 대한 그의 관점에 따르면 불택자들의 유기는 은혜의 선택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르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시는 유기와 인간을 신화시키는 선택은 (물론 이 둘은 언약 안에서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자기 결정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근거이면서 선행한다. 물론 창조와 타락에도 선행한다.¹²⁶⁾ 이 말은 모든 인간의 신 존재 동참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미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불신앙이나 불순종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을 바꿀 수 없다. 아니 인간의 불신앙조차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실현의 배경구실을 할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인합일이 원래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며 죄는 삽화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것이다. 바르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서철원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죄가 하나의 삽화로서 정의되는 이유는 죄는 하나님의 뜻의 실행 안에서 ‘무’의 개입으로서 발생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아니오”아래에 존재하기 때문이다.¹²⁷⁾

창조는 창조 그 자체를 위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다. 따라서 역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시

125) *Church Dogmatics*, II/2, 173.

126) *The Creation-Mediatorship of Jesus Christ*, 35.

127) *Ibid.* 71.

어 인간을 신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예정을 바꿀 수도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다.

2.3. 선택의 대상

바르트는 근본적인 선택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은 없는 것인가?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와 개별자를 선택의 대상으로 덧붙인다. 물론 공동체와 개별자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종속적이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론에서 주장했던 자신의 선택론 이해를 공동체와 개별자들에게 확대 적용한다.

2.3.1. 중간적 선택으로서의 공동체의 선택

바르트에 의하면, 전통적인 선택론은 개별자의 선택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¹²⁸⁾ 그러나 바르트에게는 공동체의 선택이 개별자의 선택에 선행하고 우선적이다.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사랑을 개별 인간 모두에게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개별자의 선택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바로 이어서 개개인 신자들의 선택을 다루어서는 안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개별자의 선택을 연결해주는 중간 단계의 선택을 언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개별자의 선

128) 칼뱅은 민족의 선택이나 직분으로의 선택도 말하지만 선택의 일차적인 대상이 구체적인 개개인이라고 말한다. “구원에 이르는 개인에 대한 선택을 고찰함 없이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은 반조차 설명되지 않은 것이다.” - Institutes, 3, 21, 7.

택사이에 선택을 중재하는 공동체의 선택이 존재한다.¹²⁹⁾

선택의 주체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선택의 대상은 분명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인간은 개별적인 혹은 사적인 사람들로서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섬김으로 선택되고 영원 전부터 이러한 섬김의 능력과 수행으로 결정된 공동체이다..... 이것으로부터 그리고 이것의 관점에서야 비로써 (전통이 예정론의 문제로서 너무 열렬히 다루었던) 개별적인 신자에 대해서 바르게 말해질 수 있다.¹³⁰⁾

공동체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선택 사이의 중간을 형성한다. 중간을 형성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앞뒤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이다. 공동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다. 공동체의 선택은 자립적인 선택이 결코 아니다.¹³¹⁾ 선택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개별자의 선택 사이에서 양자를 연결시켜주고 동시에 전자로부터는 결정적으로 조건 지워지고 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¹³²⁾

예수의 선택의 이중적 성격은 공동체의 선택에도 나타난다. 하나님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중적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공동체의 선택도 이중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근원적인 선택이고 그 선택 안에 공동체의 선택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의 이중성이 공동체의 선택에 영향

129) *KD*, II, 215-216.

130) *KD*, II, 216 영어판은 *Gemeinschaft*를 fellowship으로 *Gemeinde*를 community로 번역하고 있다.

131) "Es gibt al so keine selbstaendige Erwaehlung der Gemeinde." - Ibid.

132)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명제는 이미 예정론에 그리고 신론에 속해있다."- *KD*, II/2, 217.

을 주는 것은 마땅하다.¹³³⁾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가 이중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음을 말했다. 바르트에 의하면, 피조물을 언약의 상대자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유한한 피조물과의 결합을 피조물에게는 신 존재의 동참과 신화라는 영광과 획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개별자에게 증언하는 공동체도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중적인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동체는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이중적 형태를 가지는데, 이스라엘은 주로 유기로 표현된 하나님께서 버리고 극복하기 원하셨던 피조물의 한계와 피조성을 표현하고 교회로서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셨던 신 존재에 동참했을 때 누릴 영광과 기쁨이라는 선택의 긍정적인 측면을 표현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으나 그 약속을 믿지 않은 인간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공휼을 현시한다.¹³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함을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공휼의 풍성함을 입증함으로써 이 양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원결정인 신인합일을 증언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자신의 존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당하신 짐¹³⁵⁾의 무게와 피조성을 극복하는데 감수하신 대가를 증언하는데 반해서 교회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영광을 증언한다.

그러나 바르트에 의하면 이러한 이중적 역할은 어느 정도 구별되나 분리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 예수 안에서 이중적으로 나타나면서도 둘

133) *KD*, II/2, 217.

134) *KD*, II/2, 215.

135) 바르트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증언하는 이 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나사렛 예수의 인격 안에서 스스로 감당하신 심판과 저주를 의미한다. - *KD*, II/2, 227.

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선택의 부정적 증인 역할을 맡았고 교회가 선택의 긍정적 증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분리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선택과 유기의 이중성을 가지면서도 하나이고 결국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을 압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교회도 주된 역할을 각자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의 선택된 공동체로서 통일성을 가진다. 이스라엘은 선택에 저항하는 유다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비밀스런 기원이며 교회는 선택에 근거해 부름 받은 모임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 제시된 목표이다.¹³⁶⁾

바르트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유기된 공동체로 교회를 선택된 공동체로 분리하여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선택의 진정한 대상은 유대인들 자체, 교회 자체가 아니라 양자의 통일성 속에서 양자모두이다. 사실상 바르트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서 양자는 모두 선택되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예수의 유기 가운데 포함되고 교회의 역할도 예수의 선택 속에 포함된다. 바르트는 이스라엘을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시키고 교회를 부활과 하나님의 자비와 연결시킨다. 피조성의 극복 없는 신 존재의 동참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없는 교회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양자의 증언은 같이 있을 때에야 비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신인합일을 바르게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선택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증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의도와 목적이 실현되는 환경과 장

136) *KD*, II/2, 221.

소가 된다. 하나님의 선택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과 피조물의 결합으로 인한 신 존재의 동참에 관해서 듣고 믿고 그것에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다.¹³⁷⁾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실행되는 환경과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공동체는 선택된 인간, 나사렛 예수의 환경으로서 하나님의 명예가 거하는 장소 즉, 이 예수가 인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계시되는 장소이며 이 예수가 들려지는(gehoert) 장소이고 그가 믿어지는 장소이고 그러므로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증거,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사역의 공표가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발생한 신적인 심판과 공훈의 행동의 표현으로서) 온 세상에 대해서 인간의 들음과 신앙을 기다리는 신적인 약속에 봉사하기 위해서 선택된 것이다.¹³⁸⁾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의 선택은 예수 안에서 발생한 신인합일을 증거하고 알리는 증인의 역할을 위한 기능적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의 본 의도인 신인합일은 이스라엘보다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형태 속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물론 피조성의 극복 없이는 신 존재의 통보가 불가능한 것처럼, 교회는 이스라엘 없이는 하나님의

137) *KD*, II/2, 256.

138) "Die erwählte Gemeinde Gottes ist als die Umgebung des erwählten Menschen Jesus von Nazareth der Ort, wo Gottes Ehre wohnt, d. h. wo dieser Jesus als Gottes Verheissung in Person offenbar wird, wo dieser Jesus gehoert, wo an ihn geglaubt wird, wo es also in ihm und durch ihn dazu kommt, dass Gottes Selbstzeugnis, die Bekanntmachung seines guten Willens und Werkens fuer den Menschen zum Gehoer kommt und Glauben findet. Die Gemeinde ist dazu erwählt, der ganzen Welt gegenueber (als Darstellung Jesu Christi und der in ihm geschehenen Tat des goettlichen Gerichts und Erbarmens) der auf das Gehoer und den Glauben des Menschen wartenden goettlichen Verheissung zu dienen" - *KD*, II/2, 256-257.

선택된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신인합일이 보다 완전하고 분명하게 증언하는 나타내는 선택된 공동체의 보다 완전한 형태이다.¹³⁹⁾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시한다.¹⁴⁰⁾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완전한 형태이며 이스라엘의 처음과 마지막의 결정이다.¹⁴¹⁾ 예수 안에서의 인간의 선택은 예수의 유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는 이스라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예정의 이중성 가운데서는 선택이 우세하고 공동체의 이중성 가운데서는 교회가 공동체의 보다 완전한 형태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자신과의 교제에로 선택하심으로써 그를 자녀와 형제와 친밀한 자와 친구의 지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증언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무엇이 되기를 원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인간에게 전달하여 참여하게하기 원하시는 신적인 것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준다.¹⁴²⁾

2.3.2. 개별자의 선택

139) *KD*, II/2, 263.

140) *KD*, II/2, 292.

141) "Die Kirche des Evangeliums ist in der Tat die erste und letzte Bestimmung schon Israels" - *KD*, II/2, 293. 바르트는 이러한 교회와 이스라엘의 통일성을 복음과 율법에도 적용한다. "In ihrem besonderen Auftrag, Weg und Werk praeexistiert das Evangelium - als die eigentliche und wesentlich Form des Auftrags der ganzen erwählten Gemeinde - schon im Bereich des Gesetzes, schon im Schatten seines Urteils und seiner Drohung." - *Ibid*.

142) "Was Gott ist, das will er auch fuer den Menschen sein. Was ihm gehoert, das will er auch dem Menschen mitteilen." - *KD*, II/2, 262.

2.3.2.1.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체의 선택 속에서의 개별자의 선택

바르트는 전통적인 예정론이 개별자의 선택에서 출발함으로써 큰 잘못에 이르고 말았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전통적 예정론의 초점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과 모든 개별자 사이의 사적 관계의 영원한 질서에 대한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공동체의 선택은 이러한 개개인의 선택 문제의 보충으로밖에는 고려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¹⁴³⁾

바르트는 개별적인 선택을 다루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공동체의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전통적 선택론과의 차이를 주장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개별자의 선택은 예수 안에서 발생한 신인합일이라는 선택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만 평가될 수 있다.¹⁴⁴⁾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개별자를 선택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서 선택하셨고 증언하는 공동체의 선택 안에서 예정했다.¹⁴⁵⁾ 그러므로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행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개별자의 선택이 포함된다.¹⁴⁶⁾

만약 예수의 선택이 개별자의 선택을 포함하고 그러므로 개별자의 선택이 신적

143) Ibid.

144) *KD*, II/2, 339.

145) “Je diesen Menschen hat Gott in der Erwählung Jesu Christi und in der Erwählung der diesen bezeugenden Gemeinde von Ewigkeit her gesehen und erkannt, gemeint und gewollt, je ihn <<vorherbestimmt>>.” - *KD*, II/2, 340.

146) Ibid.

인 선택에 속해있다고 한다면 개별자의 선택이란 말 뿐인 것인가? 바르트 자신의 주장에 의하면, 개별자의 선택은 단지 비유적이고 부수적인 것이 아니다.¹⁴⁷⁾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개별자의 선택을 상대화시키긴 하지만 그것의 실재를 없이 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자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흡수되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의 근원적인 주체이고 대상이라고 해서 개별자들은 예수 안에서 자신들의 본질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속에서 개별자의 개별성이 제거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개별자의 선택은 공동체의 선택에 의해서 중재되고 조건 지워진다. 선택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개별자들에게 중재한다. 바르트는 개별자의 선택이 공동체의 선택의 목적이라고 단언한다. 개별자의 선택을 공동체의 선택의 목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개별성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자는 그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의 대상으로 삼은 개별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바르트가 말하는 개별자는 추상적 존재가 아니다. 개별자는 특정한 집단 속에 있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결정을 내리는 책임 있는 존재이다.¹⁴⁸⁾ 개별자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이러한 개별자의 환경이 개별자를 또 다른 집단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대자로 부르시는 것은 추상적인 민족이나 집단적 가족이 아니다. 선택은 하나님과 여러 가지 인간 집단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별적 인간

147) *KD*, II/2, 341.

148) “..... aber die Einzelnen in ihrer in diesen Beziehung sich betätigenden Verantwortlichkeit ” - *KD*, II/2, 344.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다.¹⁴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택이 발생되었다. 공동체는 이것의 필연적인 매개이다. 그러나 선택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개별적인 인간들이다.¹⁵⁰⁾

하나님은 왜 인간 집단을 선택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개별자들을 선택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인가? 바르트에 의하면, 개별적 자질이 사람을 더 사람답게 만든다거나 개별자가 더 친근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다.¹⁵¹⁾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개별자를 그의 선택의 대상으로 더 친근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별자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자를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 자체에 근거되어 있다.¹⁵²⁾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모든 길과 사역의 시작이신 영원한 아들이 그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일자 안에서 자신의 개별적 사랑을 완전하게 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이 유일자 안에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였고 이 유일자 안에서 사람을 그의 자녀로 부르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것은 개별자이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한 하나님 되심과 사람에게 관심 가지심을 적용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개별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개별자 안에서 많은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되심과 관심을 적용하신다.¹⁵³⁾

149) Ibid.

150) "In Jesus Christus ist diese Wahl getroffen. Die Gemeinde ist ihre notwendige Vermittlung. Ihr Gegenstand aber sind (in Jesus Christus! durch die Gemeinde!) die einzelnen Menschen." - Ibid.

151) Ibid.

152) *KD*, II/2, 344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선택 속에서 선택한 바로 그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특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의 대상으로 특정한 이름을 가진 개별자를 선호하신다는 것이다.¹⁵⁴⁾ 이러한 개별자들이 선택된 인간 예수와 가장 유사하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자의 개별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이나 자질인 것은 아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개별성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¹⁵⁵⁾ 인간의 개별성은 자율성으로 타락했다.¹⁵⁶⁾ 바르트에 의하면, 이런 자율적인 개별성이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무신성의 본질이다.¹⁵⁷⁾ 그러나 이러한 개별자의 반역은 개별자

153) "Weil Gott selbst Einer und weil sein ewiger Sohn, der der Anfang aller seiner Wege und Werke ist, sein Eingeborener ist, weil Gott diesem Einzigen seine Liebe ganz (individua) zugewendet, Weil er sich in diesem Einzigen zum Gott des Menschen gemacht und in diesem Einzigen den Menschen sein Kind genannt hat, darum ist es je der Einzelne, d. h. je der als dieser und dieser Mensch Einzige, auf den sich Gottes Gottsein fuer den Menschen und seine Zuwendung zum Menschen (in der Zeit und von Ewigkeit her !) bezieht und nur je in diesem Einzelnen dann auch auf die vielen und alle Menschen." - *KD*, II/2, 345.

154) "auch der Mensch wird je der Traeger eines bestimmten Personennamens sein." - *Ibid*.

155) "Einzelheit in jenem ersten Sinn ist nicht an sich Suende..... " - *KD*, II/2, 346

156) "개별자는 한분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에게 말해진 영광과 가치를 은혜로서 받고 감사로 그것에 반응하는 대신에, 그것을 자기의 자연적인 소유로 그리고 자기의 인간 실존에 내재해 있는 권리로 그리고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타당하게 만들고 주장하기를 열망하고 시도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려하시고 생각하시고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신 것이 인간 자신의 능력과 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정되는 - 그러므로 부정적으로만 이해되고 판단되어야 하는 - 인간의 개별성이다." - *KD*, II/2, 347.

157) "Sie ist das Wesen der menschlichen Gottlosigkeit." - *Ibid*.

자신의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서 그는 이미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의 반역적 선택 그 자체가 바로 “무”가 되는 것이다.¹⁵⁸⁾ 인간은 자신의 결단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을 역행시키거나 변경할 수 없다. 자신의 개별적 자율성으로는 이미 배제된 가능성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은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있으나 진리를 비 진리로 만들 수는 없다.¹⁵⁹⁾

2.3.2.2. 선택과 믿음의 관계

바르트는 개별적인 선택을, 칼뱅이 제시한 것 같은 선택과 유기의 이중 예정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바르트의 선택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무관하다. 그는 사실상 보편적 선택을 말한다. 보편적 선택이라 함은 모든 사람이 신 존재에 동참하도록 영원 전부터 결정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주는 것은 개개인들의 믿음과는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모든 개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선택은 무(nichtig)이고 그들은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러므로 유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그리고 사람의 잘못된 선택에 근거한 그에 합당한 유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짐 지워지고 제거되었다. 그리고 그는 의롭고 신적인 선택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식된다. 그의 선택의 약속은 그를 공동체의 지체로서 온 세상에 대한 공동체의 증언의 운반자가 되도록 결정한다. 그리고 그의 유기에 대한 계시 (Offenbarung)는 그로 하여금 예수는 유기를 지고 제거한 자로서 믿도록 만 결정

158) “..... ist auch sein Waehlen selbst und als solches nichtig.” - Ibid.

159) “Der Mensch kann wohl immer noch luegen (er tut es!); er kann aber die Wahrheit nicht zur Unwahrheit machen.” - *KD*, II/2, 348.

할 수 있다.¹⁶⁰⁾

바르트가 여기서 모든 사람의 선택을 말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모든 사람은 예수에게 속하고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선택되었다고 말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연합하기로 영원 전에 결정하시되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과 예외 없이 결합하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결정이며, 예수에 대한 인간의 신앙과는 무관하게 예수 안에서 성취되도록 한 결정이므로 인간 자신의 태도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에 조금도 영향을 줄 수가 없다. 물론 바르트에게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선택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이러한 주장에 제한을 가한다. 모든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으로서 혹은 선택된 사람처럼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선택되었으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유기된 사람처럼 산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반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삶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사실 자체, 피조물이 신 존재에 동참하도록 되어 있다는 영원한 결정을 바꾸거나 없이할 수는 없다. 개별자의 선택이 확실한 것은, 개별자의 선택의 근거가 개별자 속에 있는 어

160) "Das Zeugnis der Gemeinde Gottes an jeden einzelnen Menschen lautet dahin, dass diese Wahl des Gottlosen nichtig ist, dass er von Ewigkeit her Jesus Christus angehoert und also nicht verworfen, vielmehr in Jesus Christus von Gott erwaeHLT, dass die ihm auf Grund seiner verkehrten Wahl gebuehrende Verwerfung von Jesus Christus getragen und aufgehoben, dass er auf Grund der rechten, der goettlichen Wahl zum ewigen Leben mit Gott ersehen ist. Ihn wird die Zusage seiner ErwaeHLung dazu bestimmen, als Glied der Gemeinde selber zum Traeger ihres Zeugnisses an die ganze Welt zu werden. Und ihn kann die Offenbarung seiner Verwerfung nur dazu bestimmen, an Jesus Christus als an den zu glauben, von dem sie getragen und aufgehoben ist." - *KD*, II/2, 336.

떤 것, 개별자의 인격과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 근거를 가지기 때문이다.¹⁶¹⁾

그들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삶, 그들의 들음, 그들의 신앙, 약속을 전달해준 공동체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된 약속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선택되었다.¹⁶²⁾

선택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것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들의 인간적인 본성과 가능성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그들의 인간적인 역사나 발전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인간의 유기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한 것이 말해져야 하는 것처럼)¹⁶³⁾

여기서 바르트는 선택이 개개인의 삶, 들음, 신앙 심지어 선택의 약속 자체를 초월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이 말은 개개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선택과 무관하다는 말이다. 개개인의 복음에 대한 신앙유무는 선택되었다는 사실유무와 전적으로 무관하다. 피조물을 신 존재에 동참시키려는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확립된 것이며 이것은 인간의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

161) 바르트에 의하면, 신적인 소명조차 선택의 근거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의 소명은 선택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이미 선택된 자라는 것을 밝히고 증명할 뿐이다.” - *KD*, II, 375. 그리고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의 비밀이다.”라고 말한다. - *KD*, II/2, 377

162) “Dass sie Erwählte sind, das transzendiert ja nicht nur ihr Hoeren und Glauben, nicht nur die ihnen ausgerichtete Verheissung als solche und die Existenz der Gemeinde, die ihnen jene bringt..... Sie sind erwählt im Willen und Dekret des dreieinigen Gottes.” - *KD*, II/2, 352. 강조는 본인의 첨가

163) “der erwählte Jesus Christus auch sie erwählt und das geschieht an, nicht in ihrer menschlichen Natur und ihren Moeglichkeiten, an, nicht in ihrer menschlichen Geschichte und ihren Evolutionen (wie denn das Entsprechende auch von des Menschen Verworfensein zu sagen ist).” - *KD*, II/2, 353.

표하는 모든 인류를 자신의 존재에 동참시키기로 영원 전에 작정하셨다. 따라서 모든 인류의 선택은 존재론적으로 이미 결정된 것이다.

바르트는 인간이 처음부터 유기된 자가 아니라 선택된 자라고 말한다. 인간 스스로 유기를 고집하는 것은 불가능한 가능성을 선택하는 헛된 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결정도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을 바꿀 수 없다. 바르트가 말하는 은혜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자신의 존재에 동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며 동시에 모든 결정에 앞서는 결정이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피조물에게 주기 원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자신이 감당하기 원하신 것으로 이중적으로 표현된다.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서 전자는 빛으로 후자는 그림자로서 그 의미를 분명히 한다. 결국 예수의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를 제외하고는 유기된 자는 존재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심판되어 극복된 피조성외에 유기되는 것은 없다.¹⁶⁴⁾ 모든 선택된 자들은 이미 예수의 선택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은 유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유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예수는 자신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고 영원한 죽음에 넘겨졌다. 즉 유기 당했다. 그의 삶은 진정한 선택의 실행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겪어야 하는 유기된 자로서의 삶이다.¹⁶⁵⁾ 바르트에 의하면, 유기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자신의 언약의 파트너로 자녀와 친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 안에서 감당하신 인간의

164) *KD*, II/2, 389.

165) *KD*, II/2, 388.

피조성의 극복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기는 이미 예수의 지상의 삶 속에 처리된 것이므로 예수를 제외하고는 유기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¹⁶⁶⁾

바르트가 보편적인 선택을 말한다면 그에게는 선택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되는 특징이란 전혀 없는 것인가?¹⁶⁷⁾ 예수에 관한 개별자의 신앙은 아무런 차이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인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르트에게 신앙은 선택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런데 신앙은 개별자들의 기능과 역할의 측면에서는 차이를 만들어 낸다. 바르트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한다.¹⁶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원 결정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합일되도록 결정하셨고 인간의 신앙은 이러한 사실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진리를 증언하는데 반해서 이러한 사실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일한 진리에 대해 거짓말을 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불신앙의 사람들도 사실상 선택된 자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의

166) "Von seiner Erwaehlung her gesehen, gibt es ausser ihm keinen Verworfenen." - *KD*, II/2, 389

167) 바르트는 여기서 유기된 자(*der Verworfene*)라는 말을 아긴다. 그는 "andern Menschen" 이나 "der Anderer"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으로 바르트는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를 실제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만 구별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 *KD*, II/2, 378

168) "Diese Unterscheidung ist eben ihre Berufung." 바르트에 의하면 이러한 소명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증언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이다.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소명은 이것이다. - 이것은 성령의 작업이다! -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공동체의 중재를 통해서 자기의 선택으로서 선포될 수 있다는 것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자신의 선택을 신앙 안에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허락이 선택된 자들과 다른 자들과의 객관적인 구별이다." - *KD*, II/2, 380.

영역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¹⁶⁹⁾ 그래서 선택은 피조성을 지닌 인간을 신화시키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는 우리의 신앙과는 무관함으로 바르트의 선택은 보편적 선택이며 신앙과 무관한 선택이다. 결국 바르트에게는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의 구별은 없고 단지 자신의 선택을 알고 인정하는 자와 자신의 선택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있을 뿐이다.

바르트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일성 가운데 함께 보아야 하는 것처럼 선택된 자와 자신의 선택을 부인하는 자도 함께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선택된 자는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고 진리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증언한다. 이에 반해서 선택을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들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감당하기 원하신 것, 피조물들에게 원하지 않은 것, 단적으로 말해서 인간 예수의 유기로 말미암아 표현된 것을 삶으로 증언한다.¹⁷⁰⁾

169) “양자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과 계시의 비침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계시는 본질에 있어서 전적인 빛이다. 그러나 그것은 빛과 그림자로서 계시되고 인식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되고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다. 결국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는 양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이고 그분의 것이다.” - *KD*, II/2, 382.

170) "전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진리의 증언으로서 증거 하는 것처럼 후자는 자기의 거짓 증언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 한다. 그러므로 양자는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의 계시에 봉사한다. 그 계시는 내용에 의하면 전적인 빛이지만 빛과 그림자가 되지 않고서는 계시가 될 수도 없고 인식 될 수도 없다. 신자들이 이러한 직무를 위해서 선택된 자들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인간의 유기에 대한 거짓 증언을 가지고 유기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현하고 반복하고 묘사하는 한에서, 같은 직무 안에서 유기된 자들이다." - *Ibid.*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가 먼저 그리고 본래적으로 선택된 자이며 다른 선택된 자들은 예수의 선택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은 유기에도 적용된다. 예수가 근본적으로 유기된 유일한 자이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이미 유기되었으며 더 이상 실재적인 유기는 존재하지 않고 유기된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증언만이 있을 뿐이다.¹⁷¹⁾

양자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상보적으로 증언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쪽은 긍정적 증언을 다른 한 쪽은 부정적 증언을 떠맡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선택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의 기능은 이중적 형태 안에서 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알리는 것이다.¹⁷²⁾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피조물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 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과 원하시지 않은 것을 모두 포함하는 이중적 내용을 함께 가진다.¹⁷³⁾

이로보건데 바르트의 선택과 선택을 거절한 사람의 이중성은 칼뱅의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바르트의 유기에 대한 관점은 보편적 선택에 관한 그의 단호한 주장에 비추어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바르트는 교회가 불신앙을 너무 심각하게 고려한 나머지 신자와 불신자의 대립을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¹⁷⁴⁾ 바르트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간주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도록 의도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뿐이다. 피조물

171) *KD*, II/2, 388

172) *KD*, II/2, 391

173) *KD*, II/2, 389

174) “..... ihre Gegensaetzlichkeit jedenfalls nicht als absolut zu verstehen.” - *KD*, II/2, 386.

을 자신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만이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하고 사람들 사이에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신앙과 불신앙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러한 대답은 그 자체로서 선택된 백성들과 유기된 백성들로 대답하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적으로 대답하며 상보적으로 존재한다.¹⁷⁵⁾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분배해주시는 자신의 언약으로부터 배제되는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원하고 궁극적인 결정은 인간을 신으로 고양시키는 것이지 인간의 파멸이나 심판이 아니다. 따라서 영원한 은혜의 언약에 상응하는 영원한 진노의 언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¹⁷⁶⁾ 궁극적 의미에서 예수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유기되지 않았다.¹⁷⁷⁾ 그러나 자신의 선택

175) "wo der Erwählte und der Verworfene in einer und derselben Person sich gegenüber: gegeneinander und - füereinander stehen." - *KD*, II/2, 387.

176) *KD*, II/2, 499.

177) 바르트의 이러한 주장을 고려해볼 때, 그가 보편 선택과 함께 보편 구원론을 말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바르트는 자신이 보편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모호하게 한다. 바르트는 선택의 영역의 마지막 한계를 인류세계 전체와 동일시하거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것은 둘 다 잘못이며 이 두 주장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철학적 사색에 근거한 내용 없는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말한다. 바르트는 여기서 보편구원론을 인정하지 않는 듯이 보이는 주장을 언급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앞에 언급된 선택된 자의 영역의 마지막 범위)이 인간 세상 그 자체와 일치해야만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진술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를 존경한다면 **감히 주장할 수 없다**. 일종의 권리나 당위성은 그것 자체로부터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은혜로운 하나님이 단 하나의 인간도 선택하고 부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전체 인간세계도 그럴 필요가 없다. 그의 선택과 소명으로부터 어떤 역사의 형이상학이 결과 되지 않는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사건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언의 필연성만이 따라온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다음의 주장에 의해서 보충된다. "우리가

을 거절하며 버림받은 사람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존재한다.¹⁷⁸⁾ 이들은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고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를 위하신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게 반대한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로우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이신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피한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죄가 용서되지 않은 것처럼 그 죄를 반복한다. 하나님은 그의 타락의 책임과 징벌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그는 사탄의 죄수처럼 계속 그렇게 산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과 섬김으로 결정하신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 자기의 명예에 이르는 현존재의 기쁨 없음을 선택한다.”¹⁷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신자의 결정은 예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인 신인합일의 결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증언하는 섬김의 삶으로 실존하는데 반해서 자신의 선택을 거절한 유기된 자들은 선택된 자들과 함께 실존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실존한다.¹⁸⁰⁾ 인간의 유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된 유기 곧 해결된 유기이다. 따라서 바르트에게 유기는 실재적인 것이 아니다. 그에게 유기는 비 본래적이고 부가적일 뿐이다.¹⁸¹⁾ 달리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어떤 한계를 덧붙이거나 저 한계 넘어가기에 일종의 끝을 덧붙인다면 우리는 반대의 역사의 형이상학을 작동시키게 될 것이다. 이 진술들은 둘 다 추상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의 문장이 아니며 오히려 실제적인 내용 없는 형식적 귀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피해야 한다.” - *KD*, II/1, 462

178) “유기된 자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선택에 스스로 저항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사람이다.”- *KD*, II/1, 498.

179) - *Ibid*.

180) *KD*, II/2, 499.

예수 그리스도만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유기된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해버리시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실존한다는 말이다.

선택을 믿는 자들과 선택을 모르고 불신하는 자들은 이러한 상관성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에게는 특정한 회상이 그리고 유기된 자들에게는 특정한 기대가 발생한다. 선택된 자들은 유기된 자들과의 상대적 비교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회상(Erinnerung)하게 된다.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자연적인 실존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심판과 죽음과 유기에서 정죄하고 극복하기 원했던 피조성이라는 것을 회상하고 동시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 없이는 자기들은 피조물의 한계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회상하게 된다.¹⁸²⁾ 이에 반해서 선택을 거절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유기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신 존재의 통보를 기대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양자 모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대답은 단지 상대적일 뿐이다.¹⁸³⁾ 유기된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자기 자신과 언약을 맺도록 원하셨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작정한 자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¹⁸⁴⁾ 다시 말해서 유기된 자는 선택된 자의 선택전의 현실적 모습을 보여주고¹⁸⁵⁾ 자기 실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극복하기 원하신 피조성이

181) *KD*, II/2, 500.

182) *KD*, II/2, 383.

183) *Ibid.*

184) *KD*, II/2, 504.

무엇인지를 증언하며¹⁸⁶⁾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신 신 존재의 통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¹⁸⁷⁾ 이로 보건데 유기된 자는 거짓 증인으로서, 불순종하는 증인으로서 그리고 간접적인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이 된다. 유기된 자의 실존은 하나님의 선택을 거절하는 거짓된 것이고 잠정적인 것이므로 유기된 자의 목표는 유기된 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자신이 선택된 자임을 자각하는 것이다.¹⁸⁸⁾

이로 보건데, 바르트의 선택론에서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동등한 지위를 결코 가지지 않는다. 선택은 궁극적이거나 유기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선택이지 유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기는 죄인을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시키기 위해 잠정적으로 취하셔서 극복하기 원하신 것에 불과하다. 물론 바르트도 하나님의 선택의 결정에 신앙으로 반응한 선택된 자들과 자신의 선택을 부인하고 선택을 거절한 자들이 실제로 있음을 인정한다.¹⁸⁹⁾ 그러나 바르트에 의하면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이로 보건데, 바르트에게는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라는 구별은 동일한 사람 안에서 발생한 두 국면에 불과하다. 그래서 바르트의 선택론에 따르면,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는

185) "그는(유기된 자) 선택의 순수한 대상: 선택 전에 그리고 선택 없이 선택된 자를 구현하기 때문에, 그는 오해 없이 명백하게 은혜가 무엇인지, 선택이 무엇인지, 은혜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인다. 유기된 자 없이는 이것이 간과되거나 망각될 수 있다." - *KD*, II/2, 505.

186) *KD*, II/2, 505.

187) *KD*, II/2, 507.

188) *KD*, II/2, 508.

189) "There are, in fact, these two classes of men, the called and the uncalled, the believing and the godless, and therefore the elect and the apparently rejected." - *Church Dogmatics*, II/2, 351.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자신의 선택을 알고 그 선택에 걸맞게 살던 사람이 자신의 선택을 부인하고 유기된 자로서 살 수 있고 반대로 자신의 선택을 부인하고 살던 사람이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고 선택된 자에 걸 맞는 하나님의 긍휼의 증인으로 살 수도 있다.

2.3.2.3. 개별자 선택의 의도와 목적

바르트는 개별자들의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한다.¹⁹⁰⁾ 선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된 자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선택된 자의 삶의 목표와 내용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선택된 자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된 공동체의 머리고 주이시기 때문에 선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해 선택된 것이다. 선택된 자는 공동체의 중재를 통해서 선택되었고 선택 되자마자 공동체의 지체가 됨으로써 선택의 공동체를 위해 선택되었다.¹⁹¹⁾

그러나 바르트가 언급한 이러한 선택의 목적은 아직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형식적인 목적에 불과하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체를 위한 선택이 그 내용에 있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는가? 선택된 자는 하나님에 의해 사랑 받도록 선택되었다.¹⁹²⁾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결정의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육체 안에서 영원부터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는

190) “ein Erwaehlter jedenfalls ein in und mit, von und fuer Jesus Christus Erwaehlter ist.” - *KD*, II/2, 453.

191) *Ibid.*

192) *KD*, II/2, 455.

자가 되도록 선택 되었다.”¹⁹³⁾ 바르트의 이 말은 역으로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도록 선택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스스로 사람과 사랑의 교체를 나누기 위해서 언약의 상대자로 삼으시되, 피조물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 존재 동참하게 함으로써 신화시키는 것이다. 피조물에게 자신을 주어 자신과 동일하게 신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선택된 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하시고 세우신 언약의 상대자로서 실존할 수 있고 실존해야만 한다. 하나님 스스로께서 언약의 주이시고 보증인이시다. 언약의 지속은 하나님의 전능한 신실함에 의해 확실해진다.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영원하며 피조성의 한계에 의해 묶여있지 않고 죄를 용서하고 피조물이 창조자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랑이다!¹⁹⁴⁾

따라서 선택된 자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말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 사랑받은 자”이다.¹⁹⁵⁾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사람을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에의 동참이 바로 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선택된 자의 목표고 선택의 내용이다.¹⁹⁶⁾ 바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내적 완전함이

193) “Das ist ja die Bestimmung Jesu Christi selbst: in unserem Fleische der von Ewigkeit her und in Ewigkeit hinein von Gott Geliebte zu sein.” - Ibid.

194) “Er darf und soll als Partner des Bundes existieren, den Gott von sich aus gewollt und begründet, dessen Herr und Garant Gott selber, dessen Bestand durch Gottes allmächtige Treue gesichert ist. Was das auch bedeute, es bedeutet Liebe..... Und ewige, an die Schranken der Geschoepflichkeit nicht gebundene, seine Suende vergebende, das Geschoepf an der Herrlichkeit des Schoepfers beteiligende Liebe!” - Ibid.

195) Ibid.

196) “Diese Beteiligung ist das Ziel und der Inhalt, die Ausrichtung und die Fuelle,

외부로 표현된 것이다.¹⁹⁷⁾ 피조물은 하나님의 완전함에 참여하도록 결정되었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선택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은 피조물에게 전적인 축복을 의미한다.¹⁹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안에서 인간과의 연합을 결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내어 한계를 지닌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결정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있는가?¹⁹⁹⁾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으로 결정하신 것이고 인간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응답하든, 그렇지 않던지 간에 그 자체로 축복 받은 자이다.²⁰⁰⁾

바르트가 말하는 선택된 자의 축복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선택으로 인간에게 의도하신 축복은 하나님의 생명과 존재 자체에 동참하는 것이고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르트가 말하는 선택의 축복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자로서 하나님의 존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²⁰¹⁾

der Sinn und die Ordnung der Existenz des Erwaelhten." - Ibid.

197) "Gottes Herrlichkeit,..... ist das Ueberstroemen der inneren Vollkommenheit und Freude Gottes." - Ibid.

198) "Eben die Bestimmung des Erwaelhten zum Gegenstand der Liebe Gottes ist nun zweifellos seine Bestimmung zur Seligkeit." - Ibid.

199) 이것은 창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과 동일한 것이다.

200) 바르트에 의하면 이러한 선택의 축복에 대한 선택된 자들의 합당한 반응은 감사와 자신의 선택을 증언하는 것이다. "감사는 그 자체로 반복될 수 없고 되돌려 줄 수 없고 다만 거기에 상응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응답을 가지고 그 자체로 인정되고 증명될 수 있는 선행에 관한 반응이다." - *KD*, II/2, 457.

201) "Wie waere sie Teilnahme an seinem Leben, Vollstreckung der von ihm dem Menschen gewaehrten Bundesgenossenschaft,..... wenn der Mensch nur Objekt der

제3장 칼뱅의 선택론

3.1. 칼뱅의 선택론의 중요성과 선택론 이해의 범위

3.1.1. 선택론의 유익과 중요성

우리는 칼뱅이 자신의 선택론을 어떤 맥락에서 다루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는 기독교 강요 최종판²⁰²⁾에서 예정론을 구원론 논의의 결론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²⁰³⁾ 이것은 후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종종 예정론을 신론과 연관 지어 섭

Herrlichkeit Gottes bliebe und nicht auch ihr Subjekt wuerde?" - *KD*, II/2, 456.

202) 바르트의 선택론과 칼뱅의 선택론을 비교하기에 앞서서 칼뱅의 선택론의 대략적인 전체 윤곽을 그리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있는 그의 선택론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선택론의 정의와 선택론을 고찰할 때의 태도와 방법 : 칼뱅은 선택론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선택론을 고찰하는 방법과 태도를 언급한다. 선택론은 단순한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택론을 고찰하면서 우리가 걸어 가야할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택론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선택론에 관해서 침묵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pp. 920-926) 2. 선택의 정의와 단계 : 칼뱅은 사실적 선택 즉 개인의 선택을 다루기 전에 그 예표와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을 말한다. 그리고 나서 현실적, 사실적 선택으로서의 개개인의 선택을 말한다.(pp. 926-932) 3. 선택의 원인 : 칼뱅은 선택의 원인이 인간의 공덕이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말한다. 즉 인간은 거룩하기 때문에 혹은 거룩함에 대한 예지에 근거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된 것이다.(pp. 932-947) 4. 선택론에 대한 거짓된 고소에 대한 반박 : 칼뱅은 선택론이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고 인간의 죄책과 책임을 제거하며 하나님은 불공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바른 삶에 대한 열정을 파괴하고 권고나 충고를 의미 없이 만든다는 비난을 반박한다.(pp. 947-964) 5. 선택과 구원의 관계와 선택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 : 칼뱅은 선택이 소명, 구원의 확신 그리고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 선택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다룬다.(pp. 964-987)

리의 맥락에서 다루는 것과 구별된다.²⁰⁴⁾ 칼뱅은 예정에 관한 문제를 신론과 연관 지어 진술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말했다.²⁰⁵⁾ 이것은 칼뱅의 예정론이 사변적이고 죽은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실제로 칼뱅은 자신의 예정론을 시작하면서 예정론을 고찰하는 현실적인 문제제기를 소개한다. “사실 생명의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전파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정도로 같은 수납을 획득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의 판단의 놀라운 깊이가 드러난다. 이러한 다양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결정에 이바지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만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값없이 제공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 즉시 공경하는 마음으로 선택과 예정에 관해서 적절히 생각해야 하는 것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크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²⁰⁶⁾

칼뱅의 선택론의 중요한 동기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닌 이유를 성경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제적 출발점은 단순히 신자의 의구심을 해결하

203) 구원론을 다루는 3권은 25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정론은 21장에 와서야 비로소 다루어진다. 21장-24장이 예정론을 그리고 25장은 부활을 다룬다. “섭리의 교리가 신론에서 결론 부분에 위치하여 마치 하나의 아치를 마무리 짓는 종석으로서 신론을 완전케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정의 교리도 역시 구속에 관한 모든 고찰을 완결짓고 분명하게 밝혀준다.” - 프랑수아 방델,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경기도: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324.

204) 하인리히 헤페, 루이스 뵈클, 박형룡 등도 하나님의 일반 섭리와 창조 사이에 “예정론”을 위치시키고 있다.

205) *Institutes*, 1,15,8.

206) *Ibid.* 3,21,1.

는데 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칼뱅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한 경건하고 기록한 명상으로부터 우리들은 가장 좋고 달콤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²⁰⁷⁾

물론 그는 선택론이 어려운 문제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멜란히톤처럼, 예정에 관한 합당한 고찰이 기독교인들에게 해로운 절망감을 줄 것이라는 의견에 찬동하지 않는다.²⁰⁸⁾ 성경의 명시적 가르침에 따라서 선택교리를 가르치고 제시하면 선택론은 오히려 신자들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이다. 선택 교리는 구원의 출발과 원인이 오직 자유롭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있음을 알려 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게 하고 동시에 그 자비를 의지하는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²⁰⁹⁾ 칼뱅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러한 선택론의 유익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예정론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듯 우리의 생각을 심히 피곤케 하는 교묘하고 애매한 추상적인 거짓 이론은 아니다. 오히려 예정론은 경건한 자들이 믿고 따르기에 아주 적절한 교리이다. 왜냐하면 예정론은 신앙을 건설히 세워주며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들어 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경모케 하고, 그의 선하심을 찬미케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을 건설하게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정에 우리의 주위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택을 생각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풍상과 사탄의 공격, 육신의 연약함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안위할 수가 있다.²¹⁰⁾

207) "by pious and holy meditation on providence, which the rule of piety dictate to us, so that from this we may receive the best and sweetest fruit." - Ibid. 1,17,6.

208)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 p. 325

209) *Institutes*, 3.21.1.

선택교리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서 유래되었음을 가리킨다.²¹¹⁾ 그래서 이 교리를 배척하거나 “이 교리에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것이 되고 진정한 겸손을 제거하는 것이 되고 만다.”²¹²⁾ 요컨대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제시하는 선택 교리의 유익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²¹³⁾

바르트는 칼뱅의 이러한 실제적 접근 태도를 비판한다. 이러한 목회적 출발점이 칼뱅의 예정론을 성경계시에서 이탈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바르트의 비판은 터무니없다. 왜냐하면 선택론에 대한 칼뱅의 목회적 관심과 문제제기는 선택론을 비성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접근법은 바로 바울의 그것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선택론에 관해서 길게 설명하는 로마서 9장의 출발은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선택론을 시작하는 문제제기와 아주 유사하다.²¹⁴⁾ 사실 경험적 사실과 인간적 선입견에 이끌리어 선택론을 곡해한 사람은 칼뱅이 아니라 바르트이다. 바르트는 어떤 이의 선택과 다른 어떤 이의 유기라는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조차 자신의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

210) Fred H. Kooster,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Grand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1977), 56. 재인용.

211) *Institutes*, 3,21,1.

212) *Ibid.*

21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고 인간의 교만을 쳐내리고 신자들에게는 확신을 준다.” - 제프리 브로밀리, 서원모 역, 『역사신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 327.

214)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선택론을 이렇게 시작한다. “.....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의해서 제거해버렸다.

3.1.2. 선택론의 범위와 접근 태도

칼뱅에 의하면 신학자의 의무는 “듣기 좋은 말로 신자들을 홀리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확실하고 유익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다.”²¹⁵⁾ 칼뱅이 선택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목회적 유익을 준다는 실제적 유용성 때문만이 아니다. 칼뱅은 선택론이 신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을 주는 교리라고 단언하지만 그것이 선택론을 고찰해야 하는 일차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실용적 이유는 선택론 논의의 이유로 부차적인 것이다. 선택론이 가르쳐지고 연구되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²¹⁶⁾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학교다. 그 안에는 알기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생략지도 않고 알아야 마땅한 것이 가르쳐지지 않은 것도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정에 관해서 성경에 계시된 어떤 것도 신자들에게 박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²¹⁷⁾

칼뱅에 의하면, 성령의 무오한 말씀인 성경이 선택 교리의 원천이며 동시에 선택 교리 이해의 방법을 제공한다. 칼뱅에 의하면 성경은 선택 교리의 형식적 출발점이

215) *Institutes*, 1,14,4

216) *Ibid.* 3.21.3.

217) “For scripture is the school of the Holy Spirit, in which, as nothing is omitted that is both necessary and useful to know, so nothing is taught but what is expedient to know. Therefore we must guard against depriving believers of anything disclosed about predestination in Scripture” - *Ibid.* 3.21.3.

며 유일한 원천이다. 성경을 통해서만 선택 교리가 무엇인지 설명되어야 하며, 성경을 떠나는 순간 혹은 성경 보다 더 많이 말하거나 더 적게 말하는 순간 선택교리 이해는 오류에 빠지고 만다. 칼뱅에 의하면 선택론 이해를 위한 진정한 지혜는 “겸손한 학습태도와 오류를 찾아내려는 마음 없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 나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²¹⁸⁾ 칼뱅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를 넘는 순간, 우리는 길을 벗어나게 되고 어둠에 빠지게 되고 반복해서 방황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것임에 틀림없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는 것과는 다른 예정론에 대한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길 없는 황무지를 걷는 것과 같거나(욥12:24) 어둠속을 보려하는 것처럼 미친 것이다.”²¹⁹⁾ 칼뱅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선택론의 유일한 교과서이다.

칼뱅은 불경스런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사색과 예정론에 관한 합당한 지식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의 구분은 성경이 제시해 주며, 성경만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하여 건전한지에 관한 지식을 제공한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선택교리의 원천과 범위와 함께 선택 교리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접근 방법을 지적한다.²²⁰⁾ 첫째는 호기심이고 둘째는 소심성이다. 성경에 착념하지 않고 그 가르침에 복종 않고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선택론에 접근하는 사람은 사람들은 선택론을 성경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할

218) Ibid. 1,18,4.

219) Ibid. 3,21,1.

220) “본인이 믿기에는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어 두신 것은 우리가 찾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과도한 호기심을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진리를 담대하게 외치는데 인색하거나 소심한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 - Ibid, 3,21,4.

수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편견이나 호기심을 가지고 예정론을 서술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예정론을 아주 어렵고 복잡하고 위협스러운 괴물로 변조시켜 버릴 것이다..... 인간의 이성에 맞게 이 교리를 변조시키려고 할 것이다.²²¹⁾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는 것과는 다른 예정론에 대한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길 없는 황무지를 걷는 것과 같거나(욥12:24) 어둠 속을 보려하는 것처럼 미친 것이다.”²²²⁾

두 번째 위험은 소심함의 위험이다. 연약한 자들의 신앙을 혼란케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할까 두려워하여 선택 교리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칼뱅에 의하면 이러한 태도는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입을 가리는 행동이다.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며 우리는 그것을 들을 책임과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학교다. 그 안에는 알기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생략지도 않고 알아야 마땅한 것이 가르쳐지지 않은 것도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정에 관해서 성경에 계시된 어떤 것도 신자들에게 박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²²³⁾

그렇다면 칼뱅이 말하는 예정론을 다루는데 있어서 적절한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29:29절이 제시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칼뱅에게

221) Ibid.

222) Ibid.

223) Ibid. 3.21.3.

예정론에 접근하는 바른 태도와 자세는 성경이 그어 놓은 한계 속에서 예정론을 고찰하는 것이다. “본인(칼뱅)이 믿기에는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어 두신 것은 우리가 찾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²²⁴⁾

3.2. 하나님의 선택

3.2.1. 칼뱅의 선택론의 정의

칼뱅은 예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예정(predestination)이라고 부른다.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되어 지도록 의도된 것을 스스로 만드신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조건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러한 종말 중 이것 혹은 저것으로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그가 생명 혹은 죽음으로 예정되었다고 말한다.²²⁵⁾

224) Ibid. 3.21.4.

헤페도 예정론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서 칼뱅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성경에 계시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결정적으로 가르쳐지고 가치 있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계시가운데 설정해 놓으신 한계 내에서만 다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weshalb dieselbe einerseits, da sie in der heil. Schrift geoffenbart ist, ganz bestimmt gelehrt und geltend gemacht werden muss, aber andererseits auch nur innerhalb der Grenzen, welche Gott in der Offenbarung dieses Geheimnisses festgestellt hat, behandelt werden darf.)” - Heinrich Heppe, *Die Dogmatik der evangelisch-reformierten Kirch*,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58), 120.

225) "We call predestination God's eternal decree, by which he compacted with himself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영 단번 구원으로 받아들이도록 결정한 사람들과 파멸에 처해지도록 한 사람들을 그의 영원하고 불변한 계획에 의해서 정하셨다고 우리는 말한다.²²⁶⁾

여기서 칼뱅은 예정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 칼뱅에 의하면 예정이란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섭리에 따른 행위이며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들의 구원에 대한 작정이다.²²⁷⁾ 그리고 예정은 모든 인류 가운데 몇몇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도록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정은 처음부터 선택과 유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중예정이다. 그리고 예정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므로 영원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²²⁸⁾ 칼뱅에 의하면, 이러한 예정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what he willed to become of each man. For all are not created in equal condition; rather, eternal life is foreordained for some, eternal damnation for others. Therefore, as any man has been created to one or the other of these ends, we speak of him as predestined to life or to death." - *Institutes*, 3, 21, 5.

226) "As Scripture, then, clearly shows, we say that God once established by his eternal and unchangeable plan those whom he long before determined once for all to receive into salvation, and those whom, on the other hand, he would devote to destruction." - *Ibid.*

227) 박형룡은 다음과 같이 선택을 정의한다. "선택은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적 열의로 선견된 공로의 연고 없이 죄인들 중에서 일정수를 선출하여 특별은혜와 영원한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위이다. 더 간단히 말하면 선택은 인류의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다." - 『박형룡박사저작전집 II』, 285.

22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변치 않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수효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그것은 더 하거나 뺄 수가 없다." - 골든 H. 클락,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서울: 영음사, 1968), 61 에서 재인용.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선택된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선택은 근본적으로 개인들에게 적용된다. 예정은 예지 이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완전히 자유롭고 정당하지만 불가해하다고 비난할 수 없는 결정이다. 선택된 자는 소명과 칭의와 성화의 특징을 가지고 유기된 자는 강박함의 특징을 가진다.²²⁹⁾

3.2.2. 예정의 주체와 대상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것이 바로 예정이다. “성경은 영원하고 불변한 계획에 의해서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멸망 받을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²³⁰⁾ 칼뱅에 의하면, 역사상에 나타난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이다.²³¹⁾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과 계획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각 사람은 “영생과 영벌에 이르도록 창조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생명과 사망으로의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²³²⁾

229) *Institutes*, 3,22,3

230) *Ibid.* 3.21.7

231) 여기서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일의 원인이고 인간의 선택을 포함한 모든 일은 그 결과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기계적 결정의 관계가 아니라 뜻을 정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섭리하시는 분의 내적이고 인격적 필연성의 관계이다. 몰트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취는 효과처럼 기계적인 필연성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분의 내적이고 인격적인 필연성으로 발생한다.('Erfuellung' ergibt sich nicht wie die 'Wirkung' mit automatischer Notwendigkeit, sondern mit der inneren, personalen Notwendigkeit dessen, der die Verheissung gegeben hat.)” - Juergen Moltmann, *Praedestination und Perseveranz*,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61), 37.

232) *Institutes*, 3,21,5.

이러한 예정의 주체는 누구인가? 칼뱅에 의하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으로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선택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삼위 하나님 모두의 사역이나 주로 성부에게 귀속되는 사역이다.²³³⁾ 그런데, 칼뱅은 선택의 주체에 성부와 함께 성자도 포함시킨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중재자로서 개입시키셨지만 그는 성부와 마찬가지로 선택할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셨다.”²³⁴⁾ 그러나 칼뱅의 이러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바르트의 명제와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의 주체이다. 그러나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logos asarkos의 성육신이 아니며 전통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신인합일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칼뱅에 의하면 성자의 선택하심은 이미 성부의 선택하심에 기초하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선택된 사람들만이 예수에게 오고 예수의 선택을 받는다.²³⁵⁾ 그러나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로 작정되었고 실제로 발생한 하나님의

233) “예정은 그 모든 부분에서 도모와 의지가 동일하신 하나님 삼위의 일치한 행위인 것은 의심 없다..... 그러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구속은 성자에게, 성화는 성령에게 특별히 귀속시킴 같이 예정의 주권적 행위는 성부에게 특별히 귀속시키는 것이 또한 성경의 명료한 교훈이다.” - 『박형룡박사저작전집』 II. 279. cf.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 W. B. Eerdmans, 1949), 112-113.

234) “although Christ interpose himself as mediator, he claims for himself, in common with the Father, the right to choose.” - *Institutes*. 3,22,7.

235) 칼뱅은 여기서 요6:44-45을 인용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원 결정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기초하고 있다.

칼뱅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선택된 자들의 선택의 근거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다.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택에 합당한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의 선택을 숙고해야하는 거울이다.²³⁶⁾ 칼뱅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선택을 확신할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버지 안에서 조차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²³⁷⁾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이다.

선택의 대상은 누구인가? 칼뱅에 의하면 선택의 직접적인 대상은 구체적인 개개인이다.²³⁸⁾ 선택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약속한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물

236) Ibid. 3,24,5. p. 970, 그리고 칼뱅은 에베소서 강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서로 똑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의 기뻐하시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 존 칼빈, 『에베소서 강해』, (서울: 예수교 문서 선교회, 1979), 72-73.

237) “But if we have been chosen in him, we shall not find assurance of our election in ourselves: and not even in God the Father, if we conceive him as severed from his Son.” - *Institutes*, 3,22,7.

“우리는 우리가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명료하고 확고한 증언을 가진다.” - Ibid. 3,24,5.

238) Ibid. 3,21,7, 930-931.

박형룡은 선택의 대상이 모든 이성적 피조물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선하고 악한 모든 사

론 칼뱅은 민족의 선택이나²³⁹⁾ 특별한 직분과 사역으로의 선택도 말한다.²⁴⁰⁾ 그러나 민족이나 직분자의 선택은 개인적인 선택과 구별된다. 즉 전자의 선택이 후자의 선택과 일치한다거나 영적인 선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개인에 대한 선택을 고찰함 없이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은 단지 반 밖에 설명되지 않은 것이다.”²⁴¹⁾ 칼뱅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도록 선택된 것이다.

3.2.3 영원한 섭리로서의 예정

칼뱅 당시에도 유기 교리는 인기 없는 교리였고, 자주 비판받고 거절되는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칼뱅에 의하면 유기는 선택만큼이나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선택 자체는 유기를 전제하지 않고는 설 수 없다.”²⁴²⁾ 칼뱅에 따르면 유기 교리는

람, 선하고 악한 모든 천사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가 포함된다. 『박형룡박사저작전집』 II. 280-281. cf, *Systematic Theology*, 113.

239) *Institutes*, 3,21,6.

240) 박형룡은 선택의 대상에 따라 선택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 1. 민족적 선택, 2. 은혜의 외면적 수단에 향한 선택, 3. 직무적 선택, 4. 구원을 위한 선택 - 『박형룡박사저작전집』 II. 284-285.

241) *Institutes*, 3,21,7.

242) “since election itself could not stand except as set over against reprobation.” - *Ibid.* 3.23.1.

박형룡은 선택을 말하면서도 유기를 주장하지 않는 자들을 다음의 말로 비판했다. “선택의 교리를 주장하되 유기를 부정하는 자들은 전후 조음하지 못하여 자가 모순에 빠진다. 전자를 긍정하면서 후자를 부정하는 것은 예정의 작정을 비논리적이며 한편으로 기울어진 작정으로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온화 칼빈주의’의 이권을 위하여 유기 교리를 포기하려고 경향하고 이 명사는 순수한 칼빈주의를 공격하는 구실로 사용한다. ‘온화 칼빈주의’는 병든 칼빈주의

선택의 필연적인 논리적 귀결이다. 선택을 말하면서 유기를 말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선택에 의해서만 수여되는 것을 다른 이들은 우연이나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획득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예정한 유업으로부터 그들을 배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다.”²⁴³⁾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유기 교리를 직접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이다. 칼뱅에 의하면 유기의 교리는 자비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신 교리이고²⁴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가르친 교리이다.²⁴⁵⁾ 칼뱅에 의하면 유기는 선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섭리이다.

성경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영 단번 구원으로 받아들일도록 결정한 사람들과 파멸에 처해지도록 한 사람들을 그의 영원하고 불변한 계획에 의해서 설립하셨다고 말한다.²⁴⁶⁾

모든 일의 처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구원과 죽음의 결정은 그의 힘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은 모태로부터 확실한 죽음으로 결정되어 태어나도록 그렇게 정하신다.²⁴⁷⁾

요, 칼빈주의의 종말을 재촉하는 망동이다.” - 『박형룡박사저작전집』 II. 294.

243) "it will be highly absurd to say that others acquire by chance or obtain by their own effort what election alone confers on a few..... and this he does for no other reason than that he wills to exclude them from the inheritance which he predestines for his own children." - *Institutes*, 3.21.1

244)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나무마다 뽑힐 것이다.(마15:13)” - *Ibid.* 3.23.1

245)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바 긍휼의 그릇을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롬9:22-23)” - *Ibid*

246) *Ibid.* 3.21.7 p. 930

247) "Since the disposition of all things is in God's hand, since the decision of salvation

따라서 유기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계획에 의해 결정된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이다.

3.2.3.1. 선택의 이유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하고 불변한 계획에 따라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걱정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멸망에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유기하셨는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과 이유는 무엇인가?

칼뱅에 의하면 우리들이 선택된 이유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의 기뻐하신 뜻에 있다. 따라서 선택의 근거와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²⁴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은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다.²⁴⁹⁾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한 섭리의 일로서 선택의 결정은 창세전에 이루어졌

or of death rests in his power, he so ordains by his plan and will that among men some are born destined for certain death from the womb,....." - Ibid. 3.23.6 p. 954

248) 헤페는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택의 제일 원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다음의 방식에서이다. 선택 그 자체는 특별히 성부에게, 선택의 보증은 특별히 아들에게, 선택의 인침은 특별히 성령에게 속한다.(Die causa electionis princeps ist der dreieinige Gott, und zwar in der weise, dass dem Vater die electio an und fuer sich, dem Sohn die sponsio, dem heil. Geist die obsignatio der Erwaehlung insbesondere zugehoert)" - *Die Dogmatik der evangelisch-reformierten Kirch*, 121.

249) *Institutes*, 3,22,3 그리고 칼뱅은 자신의 로마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택함을 받은 자들의 경우, 그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자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냈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아 택할 마음을 갖게 될 만한 어

으므로 인간의 조건이나 선한 일이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²⁵⁰⁾ 더군다나 아담 안의 모든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할 능력을 상실했다.²⁵¹⁾ 그러므로 인간의 선행이나 공적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더군다나 칼뱅에 의하면, 인간의 선행에 대한 예지조차도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칼뱅에 의하면 예지는 예정과 동일한 것이다. 왜냐하면 신자의 선행과 거룩함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원인(선택)은 결과(거룩함) 후에 오는 것이 아니고 결과보다 앞서는 것이다..... 선택은 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²⁵²⁾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지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바울의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아래와 같이 안전하게 추론할 수 있다. :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선택하셨다면,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념(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거룩을 선택으로부터 가진다. 그리고 그들은 행위에 의해서 선택에 이른다.)은 불일치한다..... 신자들이 거룩해지도록 선택되었다고 말할 때 그것이 암시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거룩은 선택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이다.²⁵³⁾

편 공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 존 칼빈, 『로마서 주석』, (서울: 聖書敎材刊行社, 1979), 301.

250) “ ‘예정하사’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 말의 순서에 좀더 주의해야 한다. 그때는 우리가 아직 존재하기 전이다. 따서 우리 편에는 아무런 공덕도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인간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 존 칼빈,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주석』, (서울: 聖書敎材刊行社, 1979), 263.

251) “퀘변가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선택된 것은 우리가 이미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격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예견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이 얼마나 유치한 퀘변인가!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이미 상실된 자들이다.”- ibid. 260-261.

252) Ibid, 262. ()안의 내용은 본인의 첨가.

인간 안에 있는 그 무엇도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몇몇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의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선택의 근거와 이유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택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신다. 그분은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택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²⁵⁴⁾ 하나님은 스스로가 긍휼히 여기길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이 자비를 베풀기 원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 일부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배후의 원인을 물을 수 있는가?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 바깥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뜻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은 매우 나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는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다..... 하나님의 의지는 옴의 가장 높은 규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든지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는 사실에 의해서, 의로 간주되어야 한다.²⁵⁵⁾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죄인을 선택하시는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서 출발하나 선택을 실현시키는 기초는 “그리스도”이다.²⁵⁶⁾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253) *Institutes*. 3.22.3.

254) *Ibid.* 3.22.8.

255) *Ibid.* 3.23.2. 칼뱅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개념에서 무법의 신을 의미하는 “절대적 능력” 개념을 이끌어 내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결점으로부터 자유로우시고 완전의 가장 높은 법칙이며 모든 법들의 법이시다.”

256) 칼뱅은 구원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말했다. “이 구절(엡1:5)에는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원인이 언급되었는데, 그 넷째 것은 나중에 간단히 첨가되어 있다. 즉 동력인은 하나님의

선택하셨다는 것이 선택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영원한 섭리라는 사실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칼뱅에 의하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그리스도 안”이 의미하는 것은 선택의 이유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것임을 표현한 것이다.²⁵⁷⁾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선택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전자는 후자에 종속하고 전자는 후자를 실행하시는 방법이고 유일한 이유이며 전자는 후자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3.2.3.2. 유기의 이유

칼뱅은 죄인 가운데 몇몇이 선택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유기의 이유는 무엇인가? 칼뱅에 의하면, 사람들이 행하거나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행동 혹은 죄 때문에 유기되는 것은 아니다.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의 예정의 기초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²⁵⁸⁾ 칼뱅에 의하면 유기의 원인을 행위에서 찾는 사람은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야곱과 예서)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전자는 선택되었고 후자는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했기 때문이다.²⁵⁹⁾ 우리가 앞에서 선택의 이유에 관해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악한 행동에 대한 예지조차도 유기의

기쁘신 뜻이고, 질료인은 그리스도이며, 목적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다.” -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라새서 주석』, 263.

257)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그것은 응당 우리 자신 밖에서 된 것이요, 우리의 어떤 가치가 고려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셨기 때문이다.” - Ibid. 261.

258) *Institutes*, 3.22.11.

259) Ibid.

근거나 이유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장래의 사건들이 발생하도록 섭리하셨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장래의 사건들을 예지하신다.”²⁶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유기하는 이유가 인간의 악한 행동이나 그것에 대한 예지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칼뱅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있어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유기시키는데 하나님의 뜻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강압하게 하거나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한다면, 그의 의지 외에 다른 원인을 찾지 않도록 삼가야 한다.²⁶¹⁾

어거스틴과 함께 나는 말한다.: 주님은 그들이 멸망으로 갈 것을 분명히 예지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왜 그렇게 원하셨는지를 묻는 것은 우리의 도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⁶²⁾

결국 인간의 타락도 죄인의 유기 of 궁극적 이유인 하나님의 뜻 속에 포함된다.

260) Ibid. 3,23,6.

빅토르 쉐퍼드는 칼빈의 예지 이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It must be remembered that for Calvin foreknowledge equals foreordination.” - Victor Shepherd, *The Nature and Function of Faith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Vancouver: Regent College Publishing, 2004), 69.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칼빈의 예정론을 바르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평가한다. 68-77, 95-96.

261) *Institutes*, 3.22.11.

262) Ibid. 3.23.5.

물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이 지금 묶여 있는 비참한 상태로 타락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는 하나님 안에 감추인 그의 의지의 유일한 결정으로 돌아와야만 한다.²⁶³⁾

칼뱅에 따르면 모든 것의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담의 타락도 그 후손들의 타락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이거나 그분의 예정이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인가? 칼뱅의 대적자들은 칼뱅의 이러한 주장이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든다고 그를 비난했다. 그러나 칼뱅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가 정한 것에 따라서 타락하나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타락한다.”²⁶⁴⁾ 칼뱅에 의하면 인간의 타락과 멸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결코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 안에 있다. “사람들의 멸망은 그것의 원인과 이유가 자신 안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의존한다.”²⁶⁵⁾ 칼뱅에 따르면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타락과 유기의 궁극적 이유가 되고 인간의 범죄는 가까운 이유가 된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263) “Of course, I admit that in this miserable condition wherein men are now bound, all of Adam's children have fallen by God's will..... we must always at last return to the sole decision of God's will. the cause of which is hidden in him.” - Ibid. 3.23.4

264) "man falls according as God's providence ordains, but he falls by his own fault." - Ibid. 3.23.8 p. 957 그러나 여기서 칼뱅이 하나님의 소극적 허락과 적극적인 의지 사이를 구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칼뱅에 의하면 유기는 하나님의 의지가 없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그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과하심이다. 칼뱅은 로마서 9:18절에 나오는 ‘강박케 한다’라는 구절을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강박케 한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적용되는 때에는, 허용(몇몇 연약한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한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신적 진노의 행위를 의미한다. 유기된 자를 어둡게 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외적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이다.” - 『존 칼빈, 로마서 주석』, 305.

265) "their perdition depends upon the predestination of God in such a way that the cause and occasion of it are found in themselves" - Institutes, 3,23,4

에게 돌아간다.

3.2.3. 선택과 유기의 목적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다.²⁶⁶⁾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선택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적이고 우리의 영화는 부차적인 목적이다.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실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는 죄인들을 선택하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이다.²⁶⁷⁾

선택의 두 번째 목적은 신자의 거룩함이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뱅은 이 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 “신자들은 거룩해지도록 선택되었다.”²⁶⁸⁾ 이것은 선택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직접적인 목적이다. 선택의 근거에 관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리스도가 충돌하지 않는 것처럼, 선택의 목적에 관해서도 궁극적 목적과 직접적 목적은 충돌하지 않는다.²⁶⁹⁾ “어떤 일이 그 일은 한 가지이지만 그 한 가지

266) “우리가 선택받은 최고 목적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다음 이차적인 목표로 우리의 성화 문제가 뒤 따라온다.” - 『존 칼빈,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주석』, 261.

267) “‘영광’이라는 말은 특히 하나님의 자비로 비추시는 영광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비로써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Ibid. 269.

268) *Institutes*, 3.22.3.

269) 헤페는 선택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예정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의 종속적인 목적은 택자들의 구원이다.(Ihr finis summus ist die gloria Dei, ihr finis subordinatus die salus electorum.)” - *Die Dogmatik der evangelisch-reformierten*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두 가지 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모순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하는 목표는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직접적인 목표에 불과하다. 최종적인 목표는 그 집 안에서 편히 사는 것이다.”²⁷⁰⁾

칼뱅은 유기의 목적이 선택의 목적과 동일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다.²⁷¹⁾ 칼뱅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극장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유기된 자들도 포함된다. 칼뱅은 유기자들의 마음의 강박함을 설명하면서 유기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언급한다. 칼뱅에 의하면 유기자들은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도록 세워졌다.

칼뱅은 잠언의 말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를 유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말씀으로 적용한다. 칼뱅에 의하면 선택도, 유기도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의한 것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선택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를 유기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계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²⁷²⁾

Kirch, 120.

270) 『존 칼빈,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주석』, 261.

271) "through them(the reprobate) God's glory may be revealed." - Institutes. 3.22.11.
“이(유기) 예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있다.” - 『존 칼빈, 로마서 주석』, 303.

272)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유기 작정은 부수적으로 선택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호와 자비의 크기를 반증하는 목적도 동시에 가진다. “이것은 유기된 자가 멸망될 때에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선택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홀의 충만함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분명하게 확증된다. 선택 받은 자와 유기된 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똑같은 멸망의 구렁에서 선택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있다.” - Ibid. 311.

헤페는 유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유기의 목적은 이중적이다. 최종의 목적은 유

제4장 바르트 선택론의 문제점

4.1. 바르트와 칼뱅의 선택론 비교

4.1.1. 선택론의 출발점과 기초

칼뱅은 선택론이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해설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한다.²⁷³⁾ 그리고 바르트도 칼뱅처럼 예정의 교리는 성경 안에서만 탐구되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얼핏 보면 양자는 선택론을 위한 동일한 형식적 근거로서 성경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이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칼뱅이 성경을 완전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인정하는데 반해서, 바르트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²⁷⁴⁾ 그러므로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계시도 아니다. 성경은 발생한 계시의 기록이며 증언에 불과하다.²⁷⁵⁾ 결국 바르트에게 성경은 정경으로서 독보적인

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종속적인 목적은 죄로 인한 유기자의 죽음에로의 의로운 심판이다.(Der Zweck der Reprobation ist ein zwiefacher: finis supremus est Dei reprobantis gloria, - finis subalternus est reprobatorum iusta damnation ad mortem propter peccata.)" - *Die Dogmatik der evangelisch-reformierten Kirche*, 124.

273) “우리가 말씀의 범위를 넘는 즉시, 우리는 길에서 떠나 어둠에 빠진다. 우리는 계속해서 방황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것임에 틀림없다.” - *Institutes*, 3,21,2.

274) *KD*, I/I, 116, 120.

가치를 가지지만 기록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규범이 되지 못한다.²⁷⁶⁾ 이러한 바르트의 성경관은 바르트의 선택론이 전통적 선택론과 다를 수밖에 없는 형식적 기초를 제시한다.

그리고 칼뱅과 바르트는 선택론의 내용적 기초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칼뱅은 목회적 문제제기라는 실제적 출발점을 가지고 있으나²⁷⁷⁾ 바르트는 이러한 칼뱅의 접근이 신론에 해당하는 선택론을 경험적인 동기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출발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선택론에 대한 경험적 문제제기를 배제하는 것은 칼뱅을 넘어서 바울까지 비판하는 꼴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바울도 로마서에서 유대민족의 불신앙 문제에 관한 고민에서 선택론을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실제 경험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에 대한 상이한 반응을 선택론의 문제제기로 삼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바울의 방법을 모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칼뱅은 선택 교리의 유용성을 선택론 이해의 동기로 삼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르트는 이러한 칼뱅의 태도가 성경에서만 선택 교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칼뱅 자신의 처음 주장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칼뱅은 성경 외적인 요소 즉, 인간적 경험(복음 선포에 대한 인간적 반응의 차이)과 목회적 유용성(구원의 확신과 겸손의 증가)을 선택론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

275) *KD*, I/I, 104.

276) *KD*, I/1 109.

277) “사실 생명의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전파되는 것은 아니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이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깊이가 알려진다. 의심할 바 없이 이런 차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결정 때문이다.” - *Institutes*. 3.21.1.

음으로써 성경에 나타난 선택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바르트는 목회적 유용성이나 인간적 경험 그리고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증거인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인합일이라는 하나님의 자기 결정에 대한 이해만이 성경적 선택론의 기초가 된다고 말한다. 예수 안에서 발생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결정이 바르트의 선택론을 결정짓는 신학적 전제이다.

칼뱅과 바르트 둘 다 선택론의 형식적 출발점은 성경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 내용적 출발점이다. 바르트의 선택론에 있어서 내용적 전제이며 실질적 출발점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자기 존재에 동참시키려는 하나님의 작정이다. 따라서 칼뱅과 바르트는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르게 이해한다. 우선, 칼뱅에 의하면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 주권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일부는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고 일부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기 위해 은혜주시기를 간과하여 유기하는 하나님의 작정이다. 칼뱅의 선택은 필연적으로 선택과 유기 of 이중예정이다. 그러나 바르트는 칼뱅의 이런 선택 개념 자체를 선택개념에 대한 철학적 이해라고 의문시 한다. 바르트는 칼뱅의 선택론이 사변적이고 선택이란 개념을 절대화한宿命론이라고 비판한다. 바르트는 “전체 중의 일부분을 골라서 뽑고 나머지는 간과되고 배제된다.”라는 선택의 기본 개념 자체를 거부한다.

바르트의 선택은 인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합일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피조물에게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다. 그 선택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기 수여와 인간의 신 존재 동참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속에서 발생하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의 영원한 작정은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은 모호한 것이 아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밝히 드러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고 연합하시고 피조물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존재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이다. 신인합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며 하나님의 선택이다.²⁷⁸⁾

칼뱅에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주권적이고 불변한 선택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이중예정”의 형태로 표현된다. 그러나 바르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인합일(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수여와 인간의 신 존재 동참으로 가능한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주권적 뜻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핵심이며 이러한 결정이 선택의 내용이다.

4.1.2. 선택교리의 교의학적 의의

우리는 칼뱅이 그의 신학의 전체 틀 속에서 선택론을 제시하고 있는 문맥과 위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의 배치를 통해서 선택론의 교의학적 위치가 추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 나타나는 선택론의 위치는 명확하게 구원론의 문맥 속이다. 칼뱅은 구원론을 다루는 3권에서 기도에 관한 장 뒤에 예정론을 배치했다.²⁷⁹⁾

278) 바르트는 칼뱅의 예정론이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선택론을 전개한 사변적인 선택론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선택론에 자신의 개념을 주입한 잘못은 바르트 자신에게 있다. 바르트에 의하면, 성경에 증언된 계시의 핵심은 예수이고 예수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과 인간의 신인합일이다. 그는 선택에 신인합일이라는 자신의 신학적 핵심주제를 첨가한다. 아니 그 주제에 맞추어 모든 선택론을 재구성한다.

칼뱅이 구원론의 문맥 속에 선택론을 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완결된 구속을 적용하는 성령의 사역을 다루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예상한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실제로 얻는 것도 아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그의 선택론의 배경이 된다.²⁸⁰⁾ 칼뱅은 복음과 구원의 적용과 결과라는 시각에서 그 원인을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칼뱅은 선택에 대해서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실제적 유용성과 유익에 관심을 가진다.²⁸¹⁾ 이에 비해, 바르트는 신론의 내용 속에서 선택론을 다루고 있다.²⁸²⁾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6장과 7장의 관련성이다. 하나님의 사실성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6장의 내용은 자유 속에서 사랑하시는 자이신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바르트는 6장을 이런 말로 시작한다.

279) 칼뱅은 자신의 강요 초판에서는 선택론을 교회를 설명하는 문맥 속에서 제시하고 있고, 강요 최종판 에서는 3권 20장 pp. 850-920에서 기도에 관한 부분을 다룬 후에 선택론을 다루고 그 뒤에 부활에 관해서 언급한다.

280) 칼뱅은 그의 강요에서 선택론을 시작하는 처음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 *Institutes*, 3.21.1.

281) “왜냐하면 이 교리는 우리의 믿음을 건전하게 세워주며,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을 고양시키며, 이 선하심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일깨우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데 있어서, 이 선택교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만큼 더 적절한 것은 없다.” - 칼빈,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에 관하여』, 56.

282) 바르트는 그의 신론 5장에서 하나님의 인식에 관해 말하고 6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실성에 관해서 말한 다음, 7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관해서 말한다.

하나님은 자기 계시의 행위 속의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들의 교제를 추구하고 창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²⁸³⁾

여기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행위의 목적과 그 내용은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이다. 이 교제는 결국 신인합일에서 정점을 이룬다. 그리고 신인합일의 결정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일치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바로 실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선택론은 신론에 속하며, 특별히 선택론은 신론에 있어서 인식론적 우선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사실성은 그 하나님의 선택하는 행동에 의해서만 알려지기 때문이다.²⁸⁴⁾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표현된 신인합일은 하나님의 여러 많은 사역중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역에 앞서고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는 근본 행동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므로 선택론은 신론에 속하고 모든 기독교 교리에 선행하는 근본교리이다.

그리고 선택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칼뱅과 바르트는 차이가 있다. 칼뱅에게 하나님의 선택은 신자의 구원의 확실함과 견인을 보장하는 위로의 가르침이기는 하지만,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내용 자체는 아니다. 예정에 관한 교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신자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위로의 가르침이다. 칼뱅에게 선택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사신이 아니다.

283) *KD*, II/1, 258.

284) *The Hermeneutics of Election*, 35-38.

그러나 바르트에게 선택론은 그 자체가 복음이다. 왜냐하면 선택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기증여와 피조물의 고양에 의한 신인합일의 결정이기 때문이다.²⁸⁵⁾ 바르트에게 구원이란 피조물인 인간이 신인합일에 의해 피조물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화되는 것이다. 선택은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한 모든 문제와 대가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친히 처리하셨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선택은 그 자체가 복음이다.²⁸⁶⁾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그 내용에 있어서 그가 주장하는 복음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4.1.3.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

칼뱅과 바르트의 선택론의 큰 차이점들 중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이다. 양자 모두 하나님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런데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질료인으로서²⁸⁷⁾ 성부 하나님의 선택행위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한 반면에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신인합일이 선택의 주체와 대상과 그 내용 전체를 지배한다.

285) "das die gute, die beste, die schlechterdings heilvolle Botsaft ist: dass Gott sich von Ewigkeit her dafuer entschieden hat, so und nicht anders, eben in der so gestalteten Zuwendung zum Menschen Gott zu sein." - *KD*, II/2, p. 98

286)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라.”고 말한다면,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미 선택되어 신인합일이 결정되었음을 알라.”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87) 존 칼빈, 에베소서 주석, p. 263

칼뱅은 예수 그리스도는 중재자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므로 예수를 “선택의 장본인(Author)”으로 간주한다.²⁸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된 자들의 선택의 근거가 되신다. 왜냐하면 선택된 자들은 그들 자신 안에서, 자신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공로나 선행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택이 가능하게 된 기초이며, 선택된 자들이 자기의 선택을 확인하는 거울이 되신다. 그러나 예수께서 선택의 장본인이며, 선택의 기초이고 선택의 거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선행하거나 그것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동력인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질료인이 되는 예수님의 구속에 선행한다.²⁸⁹⁾

이에 반해, 바르트는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관한 칼뱅의 이러한 이해는 부족하다고 말한다.²⁹⁰⁾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의 선택은 대리적으로 위임되어 수행

288) *Institutes*, 3,22,7 - 요한복음 13:18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선택한 자가 누구인지 안다고 말씀하셨다.

289) “칼빈주의 예정론에서 기원론적 관점은 항상 우선적으로 ‘하나님’ 혹은 ‘성부’ 그리고 비로소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아들 그리스도를 지칭한다.(Auch in der calvinischen und calvinistischen Praedestinationslehre fuehrt der protologische Aspekt immer zunaechst auf Gott oder auf den Vater und erst darin und damit auf den Sohn Christus.)” - Juergen Moltmann, *Praedestination und Perseveranz*, p. 35

290) 바르트는 예수께서 선택의 확신을 알기 위한 거울에 불과하고 선택의 완전한 주체가 아니시라면, 그러한 선택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G. C. Berkouwer, *The Triumph of Grace in the Theology of Karl Barth*, p. 95 - "there comes to stand behind the revealed will of God in Jesus Christ the final, deepest, and hidden will which constitutes the real decision. It is then also no longer possible to

된 기능일 뿐만 아니라 신적인 주권적 행동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의 주체이다.²⁹¹⁾ 바르트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며 동시에 선택된 인간이라는 명제로 표현했다.

바르트가 “예수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르트의 말은 칼뱅이 말한 예수께서 “선택의 장본인”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가? 아니다. 은혜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므로 성자께서 실제로 하나님으로서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²⁹²⁾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 안에서 살다가 죽은 자로서 창조세계에 속한자이다.²⁹³⁾ 그러면 바르트가 “예수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실제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 안에서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시키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한

escape Calvin's "decretum horribile.""

291) "Auf Grund der dort bezeugten Einheit zwischen Jesus und dem Vater folgert Barth, dass auch Jesu Waehlen nicht nur eine stellvertretend und auftragsgemaess vollzogene Funktion sei, sondern goettlicher Souveraenitaetsakt." - Walter Kreck, *Grundentscheidungen in Karl Barths Dogmatik*, p. 195 Kreck은 개신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의 주체라고 명확하게 주장한 사람은 바르트가 처음이라고 말한다.

292) 바르트에 의하면 선택의 주체는 인간 예수 이지 Logos asarkos가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 예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예수와 무관한 신성 자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 Mary Kathleen Cunningham, *What is Theological Exegesis?*, p. 81

선택의 주체뿐만 아니라 화해의 주체도 인간 예수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Logos asarkos' 혹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 자체를 연결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신성의 두 번째 위격은 그 자체로 화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며 'Logos asarkos'는 감추어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 Chul Won Suh, *The Creation-Mediatorship of Jesus Christ*, pp. 72-73

293) *KD*, IV/1 50, 51, 53

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은 영원하고 신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인간 예수는 시간 안에서 살다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영원하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언약은 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작정되었다는 의미에서 예수는 선택하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인간 예수의 모든 행동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며, 신인합일을 위한 하나님의 결정으로 실행으로 이해해야 한다. 인간 예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조금의 차이도 없이 일치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실현되고 동시에 알려진다. 일부분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알려진다. 시간 안에서 살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기쁘신 결정과도 일치한다.²⁹⁴⁾ 이 말은 시간 안에서 살다 죽은 피조적 실존인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면서 선택된 인간이다.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는 하나님과 선택된 인간이 결합한다. 예수께서 선택된 인간이란 의미는 예수가 신적인 선택이 적용된 여러 선택된 사람들 중의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자기 결정인 신인합일이 실제로 실현된 유일한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처음과 나중이란 의미이다. 신인합일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본질에 필연적인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작정의 실현

294) *KD*, IV/1, 55. - "Der ewige Sohn Gottes ist nach Gottes freiem, gnaedigen Willen, Jesus Christus, wie er in der Zeit lebte, starb Er ist die in der Zeit, eben er ist aber laut dessen, was in der geschah, auch die von Ewigkeit her gefallene Entscheidung Gottes."

이다. 예수는 섭리와 작정의 실현의 일부분이 아니라 섭리와 작정의 실현 그 자체이다.²⁹⁵⁾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으로 실현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을 주심이고 피조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여 신화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실현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는 피조물의 장남으로 선택되었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기 증여와 피조물의 하나님 존재에 동참, 즉 하나님과 피조물의 언약관계가 구체화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선택하시는 하나님과 선택된 인간의 정확한 결합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실체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의 목적이다.

요컨대, 칼뱅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와 함께 선택의 권리를 가지는, 선택에 참여하는 선택의 주체로 본 반면에 바르트는 예수를 하나님의 원 결정인 신인합일을 실현하는 수단이며 신인합일이 실현된 구체적 모습이다. 칼뱅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된 자의 구원을 실현하는 분으로 본 반면에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된 자의 구원을 실현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며, 영원한 작정인 신인합일의 실현이다. 크랙이 표현한 것처럼, 바르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의 인식근거일 뿐만 아니라 존재근거이다.²⁹⁶⁾

295) *KD*, II/2, 102.

296) "Fuer Barth aber ist er(Christus) sowohl Erkenntnis- wie Seinsgrund!" - *Grundentscheidungen in Karl Barths Dogmatik*, 189.

4.1.4. 하나님의 기쁘신 뜻(선택의 불가해성)

칼뱅과 바르트의 선택론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칼뱅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예정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간주한다. 여기에는 선택뿐만 아니라 유기도 포함된다. 더군다나 칼뱅이 유기의 원인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할 때, 유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²⁹⁷⁾

칼뱅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의 예정을 따라서 타락하나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타락하는 것이다.”²⁹⁸⁾ 자신의 잘못으로 죄를 지어 심판을 받게 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그 사람을 유기하더라도 결코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다.

몇몇은 선택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유기하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마지막 해답이며 유일한 해답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배후의 이유를 묻는 것 자체가 피조물이며 피택자인 인간에게 허락되지도 대답되지도 않는 질문이다. 칼뱅에 의하면 그러한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하는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의 한계를 벗어나서 질문하고 답을 찾는 광인과 같다.²⁹⁹⁾ 결국 예정의 궁극적 원인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 눈에

297) “..... 그들은 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의 멸망을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면 왜 우리는 허용이라고 말해야 할까?” - *Institutes*, 3,23,8.

298) - *Ibid.* 3.23.8.

299) “to seek any other knowledge of predestination than what the Word of God

철저히 감추어져 있다. 단지 “예수”라는 거울을 통해서 선택된 자들은 자신의 선택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비추어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바르트에 의하면, 칼뱅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죄인에게 결코 기쁨과 복음이 될 수 없다. 선택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복음의 내용이며, 선택 전체가 복음이지³⁰⁰⁾ 선택의 배후에서 그 원인이면서 동시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존재하지 않는다.³⁰¹⁾ 이렇게 되면 성부와 성자 사이에 구별을 둠으로써 하나님 안에 이원론을 도입하는 것이 된다.³⁰²⁾ 감춰진 하나님으로서의 성부의 뜻과 계시된 하나님으로서의 성자의 뜻을 구분하게 된다.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선택의 배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선택은 절대적 섭리가 되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은 최고 지배자에 지나지 않는다.³⁰³⁾ 그러나 선택은 모호한 것이 아니

discloses is not less than if one should purpose to walk in a pathless waste(cf. Job 12:24), or to see in darkness." Ibid, 3,21,2.

300) *KD*, II/2, 98.

301) 그러나 하나님의 숨으심이 그의 계시와 대조되는 것인가? 베르카우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숨으심과 자신의 계시를 대조하신 적이 없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추심이 그의 계시에 해가된다는 개념에 어떤 여지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숨기심은 그의 계시와 대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신비는 온갖 우연과 임의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우시다.” - G. C. Berkouwer, *Divine Election*, (Grand Rapids: Eerdmans, 1960), 119, 123, 171.

302) 바르트는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전통적 삼위일체론과 언약이해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The Creation-Mediatorship of Jesus Christ*, 69. “This doctrine has two divine subjects who act mutually and are the legal subjects that impose obligations upon each other. Thus speaking of the two divine persons is to introduce dualism into God.”

303) *KD*, II/2, 51, 선택을 절대적 섭리로 이해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Douglas R. Sharp는 다음

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예수의 선택을 통해 완전히 알려졌고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바르트에 의하면 전통적인 절대적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선택의 구체적 섭리로 대체해야 한다.³⁰⁴⁾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것자체로 존재하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한 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선택은 인간 예수와 분리되어 존재하거나 알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인간을 신화시키겠다는 결정자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다.³⁰⁵⁾

과 같이 요약한다. 1. 선택을 절대적 섭리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을 넘어서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을 가정하게 된다. 2.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무시하게 된다. 3. 하나님의 일반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구원의지를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곳에서 선택의 지식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4. 절대적 섭리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성격이 선택을 변화할 수 없고 고정적인 결정론으로 만든다. 5. 결국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는 인간적, 역사적 기준과 증거를 추구하게 만든다. - *The Hermeneutics of Election*, 59.

베르카우어가 평가하기를, 바르트는 전통적인 예정 교리의 문제점이 여기서 정점에 달한다고 생각했다. “바르트는 종교개혁자들의 시각을 따라가면, 계시의 절대성은 상실되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림자가 계시된 하나님에게 드리워진다고 생각한다.” - G. C. Berkouwer, *The Triumph of Grace in the Theology of Karl Barth*,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Co., 1956), 96.

304) "genau an die Stelle, wo in der ueberlieferten Praedestinationslehre das decretum absolutum stand, das decretum concretum der Erwaehlung Jesu Christi gehoert." - *KD*, II/2, 173.

305) *KD*, II/2, 102. " Gottes Wahl ist urspuenglich und eigentlich Gottes Entscheidung dafuer, dass es so ist, wie es Joh. I, 1-2 beschrieben ist: dass wirklich das Wort - das Wort das dieser ist, das Jesus heisst - am Anfang ist, bei ihm selber, ihm selber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의 선택으로 계시되어진 혹은 예수의 선택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자신의 언약의 상대자로 만드셔서 자기 존재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것이다.³⁰⁶⁾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선택의 궁극적 원인으로 선택의 배후에 있어서 우리에게 완전히 알려질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알려졌다. 결국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언약관계(하나님의 자기 수여와 피조물의 신 존재 동참)를 성취하는 것인데, 그것이 존재론적으로 발생한 것이 인간 예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계시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영원한 작정이 선택이다.

요컨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관한 양자의 견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에 관해서, 칼뱅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몇몇에게는 적용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그 은혜 주심을 간과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이다. 그것은 선택의 내용적 원리가 아니라 형식적 원리이며, 칼뱅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동력인이다. 이에 반해 바르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예수 안에서 신인합일의 작정속에서 결정되었고 인간 예수를 통해 실제로 발생했고 구체화된 것이다. 성육신으로, 예수의 선택으로 실제로 발생했고 분명히 알려진 하나님과 피조물의 언약성취이다.

gleich und mit ihm Eines in der Gottheit."

306) 선택의 수행이 바로 화해이고 화해의 내용은 바로 피조물이 피조성을 초월하고 신의 존재에 동참하는 것이다. *The Creation-Mediatorship of Jesus Christ*, 69-71.

Douglas R. Scharp는 교의학 IV,1의 화해에 관한 논의가 II,2의 선택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에 관한 논의에 상응한다고 말한다. - *The Hermeneutics of Election*, 207-208.

4.1.5. 이중 예정

칼뱅과 바르트 양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은 이중 예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확연히 다르다. 칼뱅은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과 유기 두 가지로 분명히 구별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받아 구원 받을 자와 그 은혜 주심을 간과하셔서 심판으로 정한 유기된 자를 분명히 나누신다. 우리의 눈에는, 선택과 유기와 이러한 구별이 분명하지 않지만 이러한 예정의 이중성은 불변하고 고정적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확정적인 것이다.³⁰⁷⁾

그러나 바르트의 이중예정 이해는 칼뱅의 이해와 완전히 다르다.³⁰⁸⁾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선택된 인간이기 때문에 예정은 이중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³⁰⁹⁾ 그러나 바르트에 의하면, 칼뱅의 선택론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이중예정론의 문제점은 선택의 유일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정을 생각했기 때문에 은혜의 선택과 진노의 선택 혹은 유기를

307)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고 불변한 계획에 의하여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멸망 받을 자를 단번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한다.” - *Institutes*, 3,21,7

308) 바르트는 절대적 섭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과 공동체의 선택의 실재 근거로 삼음으로써 기존의 교리의 철저한 개정의 필요성(Die Notwendigkeit einer Totalrevision des Dogmas)을 말한다. - *KD*, II/2 373

309) 맥그라쓰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택 안에는 이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르트는 전통적인 이중 예정(*praedestinatio gemina*)의 의미를 전적으로 바꾸면서도 이중 예정이라는 용어를 보유할 수 있다고 느낀다.” - Alister E. McGrath, *Iustitia Dei*,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180.

대등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선택과 유기를 대등한 것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닌 것이다.³¹⁰⁾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신인합일을 위한 영원한 결정과 일치하기 때문에, 선택이든 유기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서만 이해되며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이해하는 술어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과 피조물의 연합사건은 긍정과 부정의 이중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한 말이 바로 선택과 유기이다.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위험을 감수하시고 피조물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것, 하나님에게는 상실이기만 하고 죄인에게는 이익이기만 한 이러한 이중성이 바로 이중예정의 내용이다.³¹¹⁾ 결국 피조물의 신 존재의 동참의 획득과 하나님의 자기 수여의 희생이 바로 선택과 유기이다.

예수께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피조물에게 자기 자신을 주기로 결정하셨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피조물의 피조성과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심을 초래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선택 안에서 밝혀진 유기
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유기가 없고 피조물의 신화는 확실하다.³¹²⁾ 이렇게 바르트는 피조물의 신화의 확실성을 고정화시키려 한다. 예수께서 선택된 인간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자신의 언약의 상대자로, 사랑

310)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반-복음이다(Das waere nicht euangelion, sondern dysangelion)." - *Grundentscheidungen in Karl Barth Dogmatik*, 190.

311) *The Triumph of Grace in the Theology of Karl Barth*, 105-106.

312) "어떤 신학적 반성도 그 자체로는 이러한 인식에 이를 수가 없고 그것은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 *Divine Election*, 161.

하는 자녀로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동참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선택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자신과 피조물에 대한 결정이 바로 예수의 선택이고 이것은 획득과 상실, 선택과 유기의 이중성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칼뱅의 이중예정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선택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유기된 인간에게는 은혜 베풀기를 간과하심으로써 공의의 심판을 적용하는 것인데 반해서, 바르트의 이중예정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는 전적인 심판과 유기를 결정하신데 반해서 피조물에게는 피조물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주심으로 전적인 예를 선언하시는 것이다.

이중예정에 대한 양자의 이러한 이해는 공동체의 선택과 개개인의 선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칼뱅에 의하면 이중 예정이 적용되는 실재로 대상은 구체적인 개개인이다.³¹³⁾ 모든 인격적 피조물들은 선택되거나 유기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바르트에 의하면 공동체의 선택이나 개개인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확대 적용한 것이며 증언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은혜에 저항함으로써 예수의 유기와 심판을 증언하고 교회는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써 예수의 선택과 승리를 증언한다. 그러나 공동체의 이러한 기능은 양자의 통일 속에서만 구별된다. 이는 예수의 선택이 하나님의 자기 수여와 피조물의 신 존재 동참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예수 안에 나타난 피조물이 신으로 상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존재의 수여라는 하강에 기초하고 있고 하나님의 하강은 피조물의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는 후자 없이는, 후자는 전자 없이는 가능하지 않으며 양자의 통일 속에서만 구별된다.

313) 물론 칼뱅도 한 민족의 선택이나 직분제로의 선택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 *Institutes*, 3,21,7.

바르트에 의하면, 공동체의 선택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선택도 예수의 선택 안에 포함된다. 개별자들에 관해서 선택과 유기를 말해야 하는 것은, 그들 중 일부는 선택되었고 나머지는 유기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의 선택의 실재와 의미가 이중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자들은 어떤 식으로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가? 자신의 선택을 거부하고 불가능한 가능성인 유기자의 실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버림받음으로 표현된 피조물의 한계를 증언한다. 즉 예수 안에서 피조물이 극복하기 원했던 것을 증언한다. 이에 반해,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선택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신인합일을 증언하는 직무를 맡는다.³¹⁴⁾

그러나 이 양자의 경계선은 고정된 것이거나 확정된 것이 아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예정이 전통적 의미의 이중 예정이 되면 그것은 이미 죽은 섭리가 되고 살아있는 행동이 되지 못한다.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예수의 선택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발생한 역사 만남 그리고 결단의 형태 안에 있는 신적인 행동이다.”³¹⁵⁾

사실상, 예수를 제외한 구체적인 개별자들은 전적으로 선택의 대상이기만 하지 유기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유기의 유일한 대상은 인간 예수이고 인간 예수의 유기 속에서 표현된 피조성이다.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주고 대신 죄

314) 바르트에 의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유기되신 것을 믿고 자기 자신은 유기되지 않고 선택되었음을 믿는 것이다. *The Triumph of Grace in the Theology of Karl Barth*, 106.

315) "Der ewige Wille Gottes ist, weil er mit der Erwaehlung Jesu Christi identisch ist, eine goettliche Handlung in Gestalt einer zwischen gott und dem Menschen stattfindenden Geschichte, Begegnung und Entscheidung." - *KD*, II/2, 169.

인의 죄책을 감당하도록 결정하신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원하지 않았던 혼돈과 무에 대해서만 부정을 선언하신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감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유기는 더 이상 인간의 몫이 아니다.³¹⁶⁾ 예정의 오직 긍정적인 요소인 신존재의 동참만이 인간의 몫이다. 하나님은 긍정을 위해서 부정을 말하시는 것이다.³¹⁷⁾ 그리고 인간의 불신조차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 선택의 혜택을 취소할 수 없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원 뜻은 결코 변화되지 않고 원 의도 안에 굳게 서 있다.³¹⁸⁾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유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쏟아졌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에게는 더 이상의 유기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게 인간은 자신의 유기를 선택조차 할 수 없다.³¹⁹⁾ 바르트의 이중예정은 죄인에 대한 전적인 긍정이며, 이중 예정 그 자체가 이미 복음이다.

4.2. 바르트 선택론의 문제점

4.2.1. 한 인격 한 하나님 VS. 인간 예수

316) *KD*, II/2 182.

317) *Grundentscheidungen in Karl Barth Dogmatik*, 190.

318) *The Creation-Mediatorship of Jesus Christ*, 69.

319) 맥그라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신은 인간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 그가 믿든 믿지 않던 그것은 그의 선택과 무관하다..... 인간이 선택되지 않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바르트)의 선택 교리는 필연적으로 보편적인 회복의 교리로 인도되어 진다.” - *Iustitia Dei*, 181.

바르트의 선택론의 문제점의 출발점은 그의 성경관과 계시이해에 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문자화를 거절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성경은 선택론 이해의 무오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성경관 때문에 그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해설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신학적 전제에 근거해서 자기 나름의 비성경적 신론과 기독교론을 구성하고 또 그에 따른 선택론을 재구성한다. 그의 선택론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비성경적 신론과 기독교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바르트는 성경적 의미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한 인격 한 하나님을 주장한다. 이러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할 피조물을 필요로 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시되 이 피조물에게 자신의 존재를 주어 신화되게 하기 까지 사랑하신다. 바르트에 의하면 한 인격 한 하나님이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 있기로 한 영원한 작정이 바로 선택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합일되 고자 하시는 작정인 선택은 사랑할 대상을 본성적으로 결핍하고 있는 한 인격 한 하나님에게는 필연적인 것이다. 바르트의 신관은 필연적으로 비성경적 선택론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바르트가 자신의 선택론에서 주장한 기독교론은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인 신인합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도록 예정되었다. 이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인 성자의 성육신인가? 아니다. 바르트는 예수가 창조세계에 속해서 시간 내에 살다가 죽었다고 말한다.³²⁰⁾

320) *KD*, IV/1 50,51,53.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인간 예수가 어떻게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인간 예수가 어떻게 선택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바르트의 이러한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의 중보자이시며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발생했다고 말한 칼뱅의 주장과 같은 것이 아니다.³²¹⁾ 바르트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의 주체라고 말할 때,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Logos asarkos가 선택의 주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³²²⁾

한 인격 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자기 존재에 동참시키는 일을 인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시기로 영원 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실제로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자기 수여와 피조물의 고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타적으로 성취되고 알려지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계시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인 신인합일이 발생할 수도 알려질 수도 없다는 의미에서 예수는 선택의 주체이다.

321) 칼빈은 Institutes 3,22,7에서 이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많은 면에서 바르트의 선택론을 찬성하는 브루너조차,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의 중보자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선택된 것이지 그에 의해서 선택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한 선택의 주체가 되면,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유기할 하나님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강조는 원래의 것임) - *The Christian Doctrine of God*, 314.

322) 바르트는 창조 전에 존재하신 분이 형체 없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darum nicht von einem gestaltlosen Christus, der dann doch wohl nur ein Christusprinzip oder dergl. sein koente, sondern von Jesus dem Christus.” *KD*, III/1, 58, *The Creation-Mediatorship of Jesus Christ*, 72-73, *What is Theological Exegesis? : Interpretation and Use of Scripture in Barth's Doctrine of Election*, 38-39, 80-81.

바르트의 기독교론적 문제점은 예수의 선택에 관한 두 번째 명제, 곧 “예수는 선택된 인간이다.”에서도 드러난다. 바르트는 선택의 대상이 “선재하는 신인인 예수 그리스도(der praexistierende Gottmensch Jesus Christus)”라고 말한다.³²³⁾ “선재하는 신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르트의 기독교론은 성경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다.³²⁴⁾ 여기서 선재한다는 말은 실재로 예수가 시간 전에 존재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재하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영원하다. 피조물의 신 존재 동참을 인간 예수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은 한 인격 한 하나님의 본성에 필연적인 것이고 그러한 결정은 영원한 작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는 영원한 작정 속에서 선재한다. 사실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는 선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이고 중간이고 마지막이다. 바르트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요한복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신 존재에 동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영원하며 그 의도 속에서 예수도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³²⁵⁾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며 피조물에 대한 이미 규정된 하나님의 결정이다.³²⁶⁾

323) “..... das goettliche Dekret, die Praedestination,, die Erwaehlung: deren Subjekt der dreieinege Gott - mit dem Vater und mit dem Heiligen Geiste also auch der Sohn Gottes - deren Objekt aber im besonderen der Sohn Gottes ist in seiner Bestimmung zum Menschensohn, der praexistierende Gottmensch Jesus Christus, der als solcher der ewige Grund aller goettlichen Erwaehlung ist.” - *KD*, II/2, p. 118 영어판은 “der praexistierende Gottmensch Jesus Christus”를 “the God-Man, Jesus Christ”로 번역함으로써 선재라는 개념을 빠트리고 있다.

324) “이런 종류의 이론은 어떤 신학자에 의해서도 말해진 적이 없다.” - *The Doctrine of God*, 347.

325) *KD*, II/2, 111, cf. *The Creation-Mediatorship of Jesus Christ*, 72.

바르트는 이러한 신론과 기독교론의 전제아래에서, 모든 인류의 신 존재 동참이라는 선택의 목적을 도출해낸다. 피조물의 신 존재의 동참은 한 인격 한 하나님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 결정은 영원한 것으로서 그 결정을 실현하는 인간 예수도 선재하고 영원하며 따라서 예수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³²⁷⁾ 바르트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결정인 신인합일의 성취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자기계시라는 자기의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가 전제로 삼는 단일한 인격의 한 하나님이라는 신론은 하나님과 인간의 결합 즉 하나님의 자기 수여와 인간의 신 존재 동참을 선택으로 이해하는 바르트의 선택론의 기초가 되고 있다. 잘못된 신론과 기독교론에 근거한 그의 선택론은 필연적으로 보편구원론과 인간의 결단과 악의 현실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4.2.2. 보편구원론

바르트의 선택 이해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선택된 자이며 따라서, 예수만이 유일하게 유기된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누구도 유기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모든 인간에게 주기로 결정하

326) *KD*, II/2, 111. "Jesus Christus war auch so im Anfang bei Gott, wie alle Kreatur und ihre ganze Geschichte in Gottes Plan und Dekret bei Gott war. Er war es aber nicht nur so : er war es zugleich als der <<Erstling aller Kreatur>>(Kol. I, 15), er war es, indem er selber der Plan und das Dekret Gottes, die inhaltlich bestimmte goettliche Entscheidung hinsichtlich aller Kreatur und ihrer ganzen Geschichte war."

327) 바르트는 선택, 구원, 언약관계에 따른 피조물의 고양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라고 계속해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상, 예수 안에서의 영원한 결정이라는 개념 안에 그리고 단일한 인격의 한 하나님이라는 그의 신론 안에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셨다. 이러한 결정은 영원한 결정이므로 그 무엇도, 누구도 이러한 결정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피조성과 그 결과를 예수 안에서 유기하기로 작정하셨고 반대로 인간에 대해서는 자신의 존재를 주심으로 전적인 “예”만을 선포하신다.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고 누구도 이 결정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없다.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전적인 예와 피조성의 한계가 예수 안에서 극복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이고 불신자는 그것을 모르거나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 유기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길의 시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기 수여와 사람의 신 존재 동참은 모든 것들에 앞서고 이것이 근본 결정이라는 의미이다. 모든 다른 결정은 신인합일이라는 하나님의 본성의 작정으로부터 유래하고 이 작정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도록 영원 전에 결정 하셨으므로 이것은 필연적으로 보편구원론으로 귀결된다.³²⁸⁾ 바르트는 표면적으로는 보편구원론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그러나 이러한 바르트의 노력은 전혀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바르트의 선택론에 의하면, 모든 인류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가운데 미리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선택되었고 구원되었다. 신인합일은 하나님의

328) 바르트는 보편구원론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반대하며 선택은 고정적인 체계가 아니라 인간에게 선포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행동이기 때문에 보편구원론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바르트의 표면적인 주장은 그의 선택론의 핵심과 모순된다.

영원하고 불변한 결정으로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 사람들에게 선교와 전도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깨닫는 계몽을 위해서만 필요할 뿐이다.

4.2.3. 타락과 죄의 현실성을 간과

바르트에게 있어서, 선택의 목적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죄로 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피조성을 초월하고 신 존재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선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래 뜻이다. 바르트는 예수가 처음부터 고난과 죽음으로 선택되었고 십자가에 죽도록 작정되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죄의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인합일을 위한 것이다.³²⁹⁾

바르트는 구원을 죄의 용서와 죄책의 제거와 원 상태로의 회복으로 보지 않고 피조물의 신화로 보고 이러한 신인합일을 하나님의 첫 번째 결정이며 궁극적 결정으로 본다. 따라서 하나님의 원 결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인합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재구성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 인간의 죄는 우발적인 일이 되고 그것의 극복은 하나님의 우연적인 반작용이 되고 만다.³³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인합일이 원래적인 것이고 죄는 삽화적인 것이다. 바르트의 이러한 주장

329) "Das Werk der Versoehnung in Jesus Christus ist die Erfuellung der von Gott urspruenglich gewollten und geschaffen Vereinigung zwischen sich und dem Menschen, dem Menschen und sich." - *KD, IV/1, 37.*

330) Ibid. "..... die menschliche Uebertretung als einen Zwischenfall und ihre Ueberwindung in Jesus Christus als Gottes kontingente Reaktion gegen diesen Zwischenfall verstehen." cf *The Creation-Mediatorship of Jesus Christ, 71.*

에 대해서 서철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죄가 하나의 삽화로서 정의되는 이유는 죄는 하나님의 뜻의 실행 안에서 ‘무’의 개입으로서 발생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아니오”아래에 존재하기 때문이다.³³¹⁾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선택 속에서 제거하고 처리하기로 결정한 대상이 “사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바르트가 악의 현실성을 진지하게 다루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바르트가 사단이라는 말로 지시하는 실재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지 않은 가능성의 총체이며 인간의 피조성의 남용이고 오용에 불과하다.³³²⁾

바르트에게 있어서 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구별하고 지나쳐 버린 ‘무’이고 죄는 이러한 불가능한 가능성을 실현하려는 인간의 노력이다. 그러나 이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속에서 이미 하나님에 의해 처벌되고 제거된 것이다. 이러한 바르트의 구원관과 죄관은 악과 죄를 진지하게 다룰 수 없다. 결국 바르트 식의 은혜의 영원한 승리는 악과 죄의 역사적 의미를 박탈시키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 또한 상실하게 된다.³³³⁾

4.2.4. 인간 결단의 무용성 (objective impossibility)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결정은 이중적인 형태를 지닌다. 그러나 바르트의 이중 예정 이해는 전통적인 이해와는 전혀 다

331) *The Creation-Mediatorship of Jesus Christ*, 71.

332) *KD*, II/2, 131.

333) 김균진, 『헤겔과 바르트』,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3), 137.

르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인간의 피조성의 한계와 남용에 대해서는 전적인 부정을 그리고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줌으로써 전적인 긍정을 선언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 결정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기초이며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다. 사실 인간에게 유기라는 것은 전적인 불가능한 가능성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유기에 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³³⁴⁾ 바르트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본질이며 사랑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르트에게 신앙이나 인간의 결단은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물론 바르트도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여 선택된 자로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객관적인 구별을 말한다.³³⁵⁾ 그러나 앞에서 보편구원론에 관한 그의 주장을 살펴본 것같이, 그의 선택론의 핵심내용은 그의 표면적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바르트에 의하면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고 선택된 자로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약속을 듣고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의 유무가 개개인의 구원이나 운명을 구별 짓는 증거는 결코 아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동일한 일을 위한 다른 기능을 위임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본질에 있어서 적적으로 빛이지만 빛과 그림자의 이중적 형태로 계시되고 인식된다. 자신의 선택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인간에게 자비로 주셨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반면에

334) *KD*, II/2, 114.

335) 바르트가 제시하는 선택된 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구별 짓는 기준은 그들의 소명이다. 이러한 소명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선포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이다. - *KD*, II/2, 380.

아직 자신의 선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피조성의 한계와 그 결과인 심판과 죽음과 유기를 증언한다. 결국 선택을 인정하는 자와 이미 없어진 유기를 고집하는 자는 양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인 피조성의 극복과 신 존재의 동참의 대변자에 불과하다.

결국 바르트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결단과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의 빛과 그림자 중 하나를 증거 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실질적인 차이나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제5장 결론

바르트 이전의 선택론은 성부 하나님의 섭리 중심으로 연구되고 이해되어졌다. 바르트는 이러한 출발점과 시각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론의 중심으로 삼았다. 이러한 바르트의 방향전환은 선택론 연구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자신의 전체를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계시이해에서 도출된 그리스도 이해를 선택론의 출발점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선택론을 자신의 구원론의 재 진술에 불과하게 만들었다. 바르트는 칼뱅의 예정론을 극복하려고 시도했으나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그러한 시도의 결과가 예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자체를 왜곡 내지는 제거하는데 이르고 말았다.

바르트는 칼뱅의 예정론을 인간의 경험에서 출발하여 고정된 절대 섭리로 끝나는 인간 이성의 구상물이라고 비판했으나 사실상 바르트의 예정론이 인간의 현재적 실존인 죄와 타락과 무관하며 동시에 인간의 영원한 귀결인 천국, 지옥과도 무

관한 낙관론에 불과하다. 바르트의 비판과는 정반대로 예정에 대한 칼빙의 문제제기는,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과 남은 자에 관한 바울의 사도적 해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에베소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사도 바울의 위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바르트는 개개인 구원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예정론을 비판했으나 이러한 시각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께서 예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었던가?

바르트는 성경이 예정론 이해를 위한 유일한 원천이며 기초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기초해서 예정론을 전개해나갔다. 인간 예수 안에서 발생한 신인합일을 떠나서는 선택이란 존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 바르트는 결국 예수께서 가르치신 선택론, 예수께서 가르치신 심판, 예수께서 가르치신 지옥을 거부하기에 이른다. 바르트의 예정론은 자기 자신의 계시이해에서 도출된 인간 예수로부터 출발해서 죄와 타락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인간의 자유와 결단마저 제거하고 결국 보편구원론에 이르고 말았다.

혹자는 바르트의 선택론을 은총의 승리라고 평가하지만, 바르트가 자신의 선택론에서 주장하는 ‘오직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 영광’ 곧 피조물의 신화에 이른다. 바르트의 선택론은 그 내용의 방대함과 구조의 통일성과 전개와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론은 전통적인 개혁신학이 말하는 선택과 전혀 다르다. 칼 바르트가 말하는 선택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할 목적으로 피조물을 자신과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서 피조물을 자신의 존재에 동참시키는 결정을 의미한다. 결국 바르트의 선택론은 인간 존재의 양양

을 위한 신학적 시도에 불과하다.